2012.12.05 NO.186
korea.kr/gonggam

무역 1조 달러 어게인 산업전사들 신화를 쓰다 P15~31

겨울철 잦은 폭설 대비… 제설 담당책임제 운영한다 P6~7

"해녀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주 최연소 해녀 김재연씨 P36~37

수출이 늘어야 내수도 산다

김정식
연세대 상경대학장

올해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8번째 무역대국(大國)으로 올라설 것이 확실시된다. 유로존 위기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이 성행하는 어려운 무역환경 속에서 이룬 성과라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 경제에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역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성장전략으로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에서 현재 2만 달러로 도약했다. 하지만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넘어 앞으로 2조 달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먼저 국민에게 무역의 중요성을 환기해야 한다.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내수는 중요하다. 수출이 내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내수를 부양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수출의 중요성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보다 내수 비중이 큰 일본도 수출이 감소하자 내수마저 침체되면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든 사실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는 수출이 늘어나야만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 내수는 수출 증가 없이 부양 정책만으로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무역지원 정책을 개선해 세계적 보호무역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세계적 보호무역 추세 속에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무역시장을 확대해야 하며, 무역분쟁 전문가를 양성해 늘어날 무역분쟁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또 신기술 지원과 신시장 정보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가 국부를 창출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역이다.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지금 내수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는 수출이 늘어나야만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넘어 2조 달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무역금융 지원 체제도 FTA 시대에 적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무역금융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금리와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물론 지원 체제를 간소화해서 많은 중소 수출업체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 무역금융이 불공정무역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무역금융 지원 체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자 물가를 낮추고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환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환율을 내려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 환율을 낮출 경우 수출이 줄면서 일본과 같이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어 결국 내수 또한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와 FTA 체결, 그리고 환율 하락과 중국이라는 경쟁국의 등장으로 우리의 무역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우리 무역업체와 정책당국은 변화된 무역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무역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 G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Contents

186호
2012.12.05 통권 287호

표지 이야기 |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 무역 규모 세계 8위권 진입이 유력하다. 올해로 49회째인 무역의 날은 지난해 무역 1조 달러 기록을 달성한 날을 기념해 기존의 11월 30일에서 12월 5일로 변경됐다. 무역의 날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생겨났다. 1억 달러 수출에 감격했던 시대를 돌아보면 두번째 맞는 무역 1조 달러 기록은 그 의미가 깊고도 새롭다.

사진·연합, 조선DB

반세기 만에 수출 5천배 한국인의 열정 빛났다

끝 모를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12월 중 다시 한 번 연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8강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무역 1조 달러'란 신기원을 열며 반세기 만에 수출 5천 배의 신화를 썼습니다. 무역의 날인 12월 5일을 맞아 수출 역군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낼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작업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주조·금형·열처리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해 온 뿌리기업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제조업 전사들입니다.

15

36

54

50

위클리 공감 korea.kr/gonggam
발행일 2012.12.05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887
정기구독 희망하시는 분은 02-2625-3294로 연락주십시오. 현재 구독자이지만 구독을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02-2625-3294 또는 jjsmall@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13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Weekly 공감〉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를 읽고

다양성을 잃은 문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185호 '올 한해 한국영화 관객 1억명 돌파' 기사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한국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이면에 몇몇 대형영화사들의 상영독식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덕 감독은 〈피에타〉가 베니스 황금사자상을 탔지만 여전히 교차상영을 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민병훈 감독은 〈터치〉를 상영관에서 내림으로써 편법상영에 항의했습니다. 영화관에 저예산이지만 예술성있는 영화들도 배려해 상영할 때 한국영화가 앞으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승환(48·자영업·서울 종로구 낙원동)

연평도 도발 재발방지를 위한 국민 관심 필요

벌써 연평도 포격도발이 2년이나 지났다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장병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어제 일처럼 연평도 전역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준비된 자에게 시련이란 앞으로 나갈 디딤돌일 뿐이다'라는 말처럼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NLL 사수와 우리 국토를 지키는 일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성(44·회사원·서울 구로구 고척1동)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

'소통과 공감–이웃사촌 없는 아파트' 편을 읽고 가슴이 뜨끔했답니다. 저 역시 아파트에 오래 살면서 앞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 기사를 읽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 어린 꼬마나 학생들이 인사를 할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난처했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일부터는 용기를 내 먼저 이웃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하며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아파트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권기철(43·회사원·경기 안양시 만안구)

자원봉사는 일종의 보험… 작은 것부터 실천을

185호 기획특집으로 다룬 자원봉사 관련 기사를 읽은 것은 제게 그동안 주변의 이웃들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품앗이, 두레, 계 등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을 지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도 우리 역사와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급격한 사회변화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 전통을 잠시 잊어버렸다고 봅니다. 자원봉사 하면 무조건 거창하고 큰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이희정(39·주부·서울 강남구 논현2동)

독자 인터뷰

"문화기사 보며 뿌듯… 지면에 구직관련 정보 실렸으면"

최동진(38·자영업·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자영업을 하고 있는 최동진씨는 친누나의 소개로 〈위클리 공감〉을 접하게 됐다. 정책홍보지라 딱딱할 것 같았지만 막상 보니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소식부터 문화소식, 여행기까지 다양한 소식을 알 수 있어 유익하다고 했다.

185호에서 재미있게 읽은 기사는.

"아리랑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하다는 '문화초점'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이 서려 있는 아리랑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부디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돼서, 전 세계인이 아리랑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 눈길이 가는 기사는.

"올 한해 한국영화 관객이 1억명을 돌파했다는 '문화화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도 영화를 좋아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영화관을 찾는 편이지만 올해 1억명이 영화관을 찾았다는 건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적 열기를 발판 삼아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제2, 제3의 〈피에타〉가 탄생하길 바랍니다."

〈위클리 공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위클리 공감〉을 즐겨 보지만 일자리와 관련된 기사는 많지 않아 아쉽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위클리 공감〉에서 공공기관 구인란 코너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안전부 나라일터〉와 연계해서 기간제 근로자, 행정인턴, 계약직 근로자 등 채용정보를 올려 주시면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독자 인터뷰 신청받습니다. 〈위클리 공감〉을 읽으신 후 느낀 점을 간략한 자기소개, 연락처, 얼굴이 잘 나온 사진과 함께 메일(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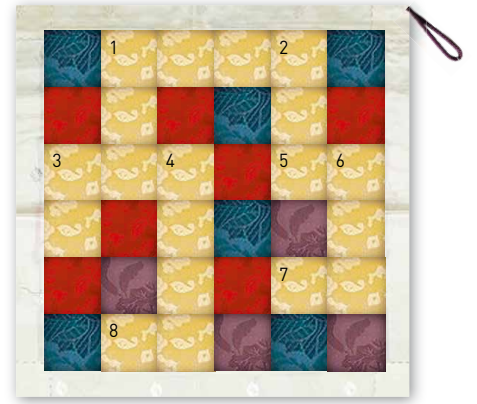
제2회 국립공원 웹툰 공모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제2회 국립공원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국립공원에서의 추억,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방법 등 국립공원과 관련된 주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입상된 작품의 저작권 등 권한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귀속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nps.or.kr/webtoon_contest/main.do)를 참고하면 된다.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주제 | 국립공원과 관련된 주제는 무엇이든 가능
공모일정 | 웹툰
시상내역 | 12월 16일까지
제출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공모형식 | 가로 720pixel 이하, 4컷 이상의 단편작(스토리라인이 완결형태여야 함) JPG 또는 GIF 파일을 압축하여 제출(단, 당선작은 원본 파일 제출)
시상내역 | ▲대상 1점 2백만원 ▲최우수상 2점 각 1백만원 ▲우수상 3점 각 50만원 ▲입선 4점 각 30만원
문의 |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 ☎02-3279-2848

2013 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 공모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3 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 공모전'을 연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과 임금구조, 청년층 및 대학졸업자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 활성화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청년 및 고령자 고용, 직업훈련, 직업상담 등 고용정책 수립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데이터설명회, 심포지엄 개최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urvey.k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대상 | **전문가부문** – 대학교수, 대학강사 및 연구기관 연구자
※ 교수와 대학원생 공동연구 가능
학생부문(경진대회) –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학생 또는 휴학생
공모주제 |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OMS),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청년패널조사(YP),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한 학술논문
공모일정 | 접수 : 12월 18일까지 | 발표 : 12월 24일 예정 | 시상 : 12월 27일 예정
공모분야 | 논문
공모기간 | 연구계획서 제출 12월 21일 18:00 까지
접수방법 | e-mail 접수(hunzzang96@keis.or.kr)
시상내역(학생부문) | ▲최우수상–상장 및 상금 2백만원 ▲우수상–상장 및 상금 1백만원 ▲장려상–상장 및 상금 70만원
※ 응모논문의 수준에 따라 시상내역이 변동될 수 있음
문의 | e-mail : hunzzang96@keis.or.kr ☎ 02-2629-7358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2월 13일 오전까지 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어떠한 것을 이루는 낱낱의 대상. '조목조목'과 비슷한 말. "틀린 문제를 OOOO 짚어 가면서 검토해 보자."
3. 눈금을 매긴 자.
5. 호숫가.
7.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김.
8. 주된 역할.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 연극이나 영화에서 주연 등을 맡은 사람.

세로

1. 누구를 시키어. 하게 하여. "그로 OOO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라."
2. 광활한 우주 궤도 속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미래를 쏘아올리려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3. 눈이 가는 곳. 또는 눈으로 보는 방향. "두 OO이 마주치다."
4. 국가가 외국 무역에 아무런 간섭이나 보호를 하지 않고 관세도 매기지 않으며 각 개인의 자유에 맡겨 하는 무역. FTA.
6.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인 물질. 우리나라 효자 수출 품목의 하나죠.

〈weekly 공감〉 184호(11월 21일자) '공감퍼즐' 정답
가로 1 미술관 3 템포 4 객수 6 코스모스 8 승무원
세로 1 미포 2 관광객 3 템플스테이 5 수목원 7 스승

〈weekly 공감〉 184호 '공감 퍼즐' 당첨자
장소연·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김선미·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박민지·충남 예산군 대술면
김희용·전남 여수시 광무동
박서영·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조선DB

부산 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011년 2월 시민들이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겨울철 재난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2월부터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잦은 폭설 대비한 제설 담당책임제 운영

현장제설 전진기지도 1백55곳서 올해는 4백56곳으로 확대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를 동반한 폭설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민불편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12월부터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24시간 3교대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특보단계별 비상(4단계)근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해 도서지역 기상대와 항로표시관리소에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시간대별 강설상황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에 설치된 5천4백79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 강설량을 눈으로 확인하고 제설에 필요한 현장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인명보호 대책으로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폭설이 내릴 경우 노후된 건물이 붕괴되거나 도로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정부는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지정을 확대키로 한 것.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의 경우 대비 담당자를 지정해 전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대피소는 2012년 현재 3백93개소가 있다.

교통두절 우려 산간마을도 확대 지정

폭설로 인해 교통이 두절될 수 있는 산간마을도 확대 지정하고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두절이 우려되는 산간마을은 지난해 9개 시·도에 1백9개 마을을 지정한 바 있으나 정부는 올해 14개 시·도 3백39개 마을로 확대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무인 제설장비도 크게 보완된다.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지난해 총 3백93개소였으나 올해는 5백19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제설취약 구간도 확대 지정키로 했다.

제설취약 구간은 전국 3천3백23개소에서 3천4백48개소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설작업의 발빠른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설 담당책임제를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설 담당책임제하에서는 강설 예상 1시간 전에 제설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염수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폭설이 내릴 경우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될 수 있는 이른바 전진기지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설 전진기지는 1백55개소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대폭 늘려 총 4백56개소가 운영된다. 제설자재를 보관하거나 제설제를 넣어 두는 창고도 늘어난다. 보관창고는 4개소에서 10개소로, 제설제 보유량은 지난해 4천톤에서 올해 2만톤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고립지역 물자운송에 헬기 3백69대 풀가동

제설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와 핫라인도 구축된다. 폭설이 내릴 경우 제설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현장으로 가져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설자재 생산업체들과 긴급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측은 폭설을 대비해 차량 및 제설삽 등은 이미 지난해에 비해 1백54퍼센트 이상 사전 확보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민·관·군이 협력하는 물자동원 시스템도 가동된다. 극한 기상으로 인해 제설물자의 운송에 차질을 빚을 것을 대비한 조치다. 정부는 전국 대대급 1백97개 부대와 대한건설협회·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민간단체의 협조를 구해 보유장비 22만대와 최대 인력 3백80만명이 긴급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폭설로 인해 고립된 지역에는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응급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헬기 3백69대가 풀가동된다. 국방부, 경찰청, 산림청 등이 협조하기로 했다.

농·수·축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물보호 프로그램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우선 폭설시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관리대상을 지정하고 DB를 구축해 놨다. 시설물을 보유한 농어민 13만여 명에 대한 휴대폰 연락망도 이번에 새롭게 마련됐다.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된다. 원예, 축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기술지원단도 이미 가동 채비를 마쳤다. 각 3명씩 총 5개 지원단이 전국을 돌며 지원에 앞장설 예정이다.

조선DB

지난 2월 한파에 얼어붙은 수도계량기. 정부는 올 겨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파방지용 계량기 24만여 개를 조기 교체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한파가 며칠간 지속될 경우 소방방재청 등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24시간 비상지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3한4온의 전형적인 겨울철 날씨의 특성이 사라져 지난해의 경우 일주일 내내 한파가 지속된 때도 있었다. 상수도 동파 및 전기·가스·보일러가 고장날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 안전점검 및 긴급 서비스반도 편성, 상시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섬지역 지자체나 산악지형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제설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갈 계획이다.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시설도 1백51곳 운영

정부는 또 지자체 등과 공조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한 동파방지용 계량기 24만여 개를 조기 교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별 데이터는 지자체가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노숙자, 쪽방촌 거주자 등 동절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보호 및 진료시설을 전국 1백51개소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폭설과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겨울철에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위주의 지원체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G

글·김대현 기자

생활습관만 바꿔도 에너지 비용 뚝! 뚝!

냉장고 용량 60퍼센트만 채우고… 전원 플러그는 항상 뽑아두세요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서도 실천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몸에 밴 생활습관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TV를 시청한 후 잠자리에 들 때 코드를 그대로 꽂아두는 등의 습관만 고치더라도 기존 에너지소비량이 확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사시사철 작동하는 전기기기인 냉장고를 예로 들어보자. 냉장고의 전기사용량을 줄이려면 냉기가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음식물을 적정하게 채우는 것이 좋다. 흔히 집 냉장고를 열어보면 안쪽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채워놓는 경우가 있는데, 냉기 순환에 방해를 준다. 일주일 단위로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신선도에 따라 버려야 할 것과 빨리 먹어야 할 것, 좀 더 두고 먹어도 될 것 등으로 분류해 저장 공간의 60퍼센트 정도로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TV와 컴퓨터는 습관적으로 켜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전기소비도 만만치 않다. 빨래나 설거지할 때 버릇처럼 켜둔 TV·컴퓨터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두는 습관을 기르자. 또 지금보다 하루에 1시간 정도 TV 시청이나 컴퓨터 하는 시간을 줄인다면, 1년에 시간당 92킬로와트의 전기를 줄일 수 있다. 세탁기는 세탁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하되, 물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세탁하고, 찬물로 헹구는 습관을 갖자.

환기할 때는 난방기기 작동을 멈추세요

주방에서는 식기세척기 사용 습관을 바꿔보자.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식기세척기 사용이 크게 늘었는데, 세척 시 소모되는 전기량도 상당하다. 식기는 모아서 가득 찼을 때 한꺼번에 돌리고, 특히 건조 기능을 이용하는 대신 식기세척기의 문을 열고 자연 건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전기밥솥이나 전기오븐 등 주방가전기기 대신 압력밥솥과 같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기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습관만 잘 고치면 새는 전기를 막을 수 있다. 전기밥솥은 필요한 양만큼 밥을 해 남은 밥을 장시간 보온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냉동식품을 해동해야 할 때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기보다 미리 꺼내어 상온에서 녹이는 습관을 기르자. 찌개를 끓이기 위한 물은 필요한 만큼만 넣어 뚜껑을 닫고 끓이도록 한다.

요즘 지은 주택은 단열효과가 뛰어나 열손실이 적은 편이지만, 잘못된 습관 때문에 열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난방보일러를 작동할 때는 문이나 창문을 여닫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출입은 가급적 줄이고 환기를 할 때는 난방기기의 작동을 멈추고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것이 열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환기는 가급적 실외와 실내 온도차가 줄고 햇볕이 있는 한낮에 하도록 한다.

난방 설정온도를 20도 이하로 맞추는 습관도 좋다. 난방온도를 1도 낮출 때마다 난방에너지 요구량은 평균 9퍼센트 정도 감소하는데, 이를 난방비용으로 환산하면 1도당 약 6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난방온도를 20도 정도로 유지만 해도 24도로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연간 약 24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

두꺼운 커튼은 열손실 절감 효과

카디건, 무릎담요, 양말 등을 착용하는 것도 좋다. 카디건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2.2도 상승하고, 무릎담요는 2.5도, 양말은 0.6도 올려준다. 바닥까지 내려오는 커튼도 실내 온도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 특히 두꺼운 커튼을 설치하면 창문을 통한 열손실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겨울철 최대전력수요 중 전기난방기기의 사용 비율이 무려 25퍼센트나 차지한다고 한다. 따뜻한 옷으로 체감온도를 높이고 커튼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면 전기난방기기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평소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붙어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에너지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일수록 전기절약 효과가 크다. 1등급 제품이 5등급 제품보다 약 30~40퍼센트 정도 전기절약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 전기밥솥이나 세탁기, 냉장고 등을 구입할 때 가족 구성원 수에 적합한 용량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쓸데없는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글·공감코리아

조선DB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전기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전열기는 적절한 장소에 틀어놓고,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맞춰놓으면 난방비가 절약된다.

겨울철 에너지 절약 체크리스트

✔ 겨울철 에너지 절약 준비

- 벽, 지붕에 단열재가 파손되었거나 없는 경우, 단열재 보수·시공 ☐
- 단열 성능이 낮은 창문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창문으로 교체 ☐
- 기밀하지 않은 창 및 문 주위 바람이 새는 곳에 문풍지 설치 ☐
- 창틀이나 구조체 틈새 등 바람이 새는 곳에 코킹 시공 ☐
- 난방기기 구입 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선택 ☐
- 보일러 내부 이물질 제거 및 청소 ☐
- 두꺼운 커튼으로 교체 ☐

✔ 겨울철 에너지 절약

- 난방온도는 20도 이하로 유지 ☐
- 주택의 단열 수준에 맞추어 보일러 온도조절기의 기능을 활용 ☐
- 낮에는 커튼을 걷어 햇볕을 들이고, 밤에는 커튼을 닫아 난방에너지의 손실을 방지 ☐
- 전기히터 등 전기난방기기 사용 자제 ☐
- 담요나 카펫을 바닥에 깔아 냉기를 막고, 난방열을 유지 ☐

겨울철 전력피크 시 대응요령

가정 부문의 겨울철 에너지사용량은 여름에 비해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특히 난방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난방기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겨울철 최대전력수요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부터는 겨울철 최대전력부하가 여름철 최대전력부하를 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전력피크 시에도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합니다.

- 전기난방기기의 사용을 중지합니다.
- 다리미, 헤어드라이기,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오븐, 전기밥솥,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소비전력이 큰 가전기기의 사용을 즉시 중지합니다.
- TV, 컴퓨터 등 기타 가전기기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을 중지합니다.
-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방의 조명등을 모두 끕니다.

‘온(溫)맵시’로 체온 Up! 난방비는 Down!

환경부, 동절기 복장 문화 캠페인… 난방온도 2도 낮추면 연 5만원 절약

‘온(溫)맵시’를 아시는가? ‘온(溫)맵시’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는 의미의 한자 ‘온(溫)’과 옷 모양새를 의미하는 순 우리말 ‘맵시’의 합성어. 편안하면서도 따뜻해 건강, 패션까지 고려한 옷차림을 뜻하는 말이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의 일환으로, 동절기 복장 문화 정착을 위한 온(溫)맵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에 약간 춥게 생활해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체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조언한다. “인체가 체온조절을 스스로 하지 않고 난방과 같은 보조 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면역력이 점차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약해진 인체는 감기 바이러스나 독감에 감염되기 쉽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관의 수축이완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혈압조절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내복 입으면 잔주름살 예방 효과도

가장 쉬운 ‘온맵시’ 실천법은 내복이다. 내복은 피부의 분비물을 흡수하고 몸의 열을 외부로 빼앗기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좋다.

내복이 아니라면 얇은 옷이라도 속에 받쳐 입는 것이 좋다. 표피세포, 피지, 땀 등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몸의 ‘때’는 하루 6~12그램 정도 나온다.

그중 피지가 2그램이다. 피지가 옷에 묻으면 차츰 산화해 노랗게 변하고 옷을 망가뜨리게 된다. 따라서 피지 분비가 많은 겨울철엔 내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다.

내복을 입으면 몸에서 배출된 땀이 옷 사이에 비교적 오래 머물면서 피부를 보습해 주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따라서 실내가 건조할 때 생기기 쉬운 잔주름살도 예방할 수 있다.

‘온맵시’를 위한 또 다른 아이템은 조끼다. 추울 때는 머리와 몸통을 집중적으로 보온해, 따뜻해진 체열이 팔다리로 전달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조끼는 이런 원리가 적용된 대표적인 형태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지난 11월 22일 ‘겨울철 온(溫)맵시 및 20퍼센트 절약실천 캠페인’을 열었다.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3도 가량 올라간다.

특히 솜 등을 넣은 후드 형태의 조끼가 더 따뜻하다. 추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부위인 허리나 어깨 부위를 보온하는 조끼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보온 효과가 큰 유용한 장비다.

‘온맵시’ 복장은 체감온도를 섭씨 2.4도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어 난방비용을 절약하고, 감기를 예방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온맵시 복장을 하고 실내온도를 섭씨 2.4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16.8퍼센트 줄일 수 있다.

이는 공공·상업 부문에서 연간 1백15만TOE(에너지를 석유 발열량으로 환산한 단위, 1TOE=1천만 킬로칼로리)의 에너지 절감과 함께 3백44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이는 어린 소나무 약 12억 그루의 식목효과를 내는 것과 같다. 겨울철 난방온도를 섭씨 2도만 낮춰도, 연간 5만7천2백14원(1백10일 기준)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G

글·이범진 기자

중앙 7개 부처 5천여 명 ‘세종시대’ 열었다

12월 3일 첫 근무 맞아 행복도시건설청도 바쁜 사전점검

12월 3일부터 세종청사 1단계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근무가 시작됐다. 이를 앞두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들은 정부세종청사의 1단계 근무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11월 25일 주말을 반납한 채 정안 IC 도로 및 정부세종청사 임시주차장 등지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현장점검은 올 연말까지 1단계 중앙행정기관 7개 부처 5천4백98명(용역 1백50명 포함)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것이었다. 이재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이전 일주일을 앞둔 주말 현장점검에서 직접 지휘봉을 잡았다. 이 청장은 정부세종청사의 관문 역할을 맡은 정안 IC 입구를 시작으로 정부세종청사 임시주차장(4개소)과 주변환경, 청사 새집증후군 여부, 호수공원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그동안 행복도시건설청은 모두 7차례에 걸쳐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점검단 회의를 개최, 각 기관별로 이전 관련 불편사항을 검토하고 개선해 왔다.

연말까지 입주 완료… 편의시설 등 일제 점검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상황 점검이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그동안 이주공무원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공무원들을 위해 주거 안내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운영 강화에 역점을 두어왔다.

이전지원점검단 회의에서는 교통, 교육, 환경 등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지난 11월 20일에는 고속도로, 국도 등을 이용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연결도로인 대중교통중심도로(BRT), 국도1호선 우회도로와 청사 내 순환도로 등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대중교통은 교통수요를 감안해 버스노선 연장 및 증회 운행 협의를 마치고 출퇴근 시간대 통근버스와 청사 내 순환버스도 이전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운행토록 조치했다. 택시 이용요금의 할증제는 폐지하고, 택시미터 요금 적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와 합동단속을 병행 시행키로 했다. 또 택시공동사업구역 운영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 1단계 이전 일정 및 업무개시 계획

기관별	구분	1차	2차	3차	4차
국무총리실 (645명)	포장 및 이동	9월 14~16일 (119명)	11월 30일~12월 2일(185명)	12월 7~9일 (266명)	12월 14~16일 (75명)
	업무시작	9월 17일	12월 3일	12월 10일	12월 17일
기획재정부 (1,173명)	포장 및 이동	12월 7~9일 (183명)	12월 10~16일 (746명)	12월 17~18일 (244명)	
	업무시작	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19일	
국토해양부 (1,662명)	포장 및 이동	11월 30일~12월 2일 (519명)	12월 7~9일 (576명)	12월 14~16일 (567명)	
	업무시작	12월 3일	12월 10일	12월 17일	
환 경 부 (606명)	포장 및 이동	12월 21~24일 (303명)	12월 26~30일 (303명)		
	업무시작	12월 24일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 (777명)	포장 및 이동	11월 30일~12월 2일 (350명)	12월 7~9일 (427명)		
	업무시작	12월 3일	12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415명)	포장 및 이동	12월 12~16일 (296명)	12월 17~18일 (119명)		
	업무시작	12월 7일	12월 20일		
행복도시건설청 (220명)	포장 및 이동	12월 13~16일 (220명)			
	업무시작	12월 17일			

첫마을 초등학교 정원초과 문제는 단기적으로 임시학급을 개설해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신설학교의 개교시기를 앞당겨 이전공무원 자녀들의 전·입학에 차질이 없도록 논의했다. 행복도시에 2, 3단계 정부청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및 방치된 자재 등을 정리하고 주차장에 대한 추가 부지 2개를 확보하는 등 이전초기 주차수요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재홍 행복도시건설청장은 “11월말부터 국토해양부 등 7개 부처가 본격 이전됨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서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해왔다”면서 “연말까지 이전기관의 입주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첨단과 환경이 숨 쉬는 혁신도시 '순항'

전국 10곳 연말까지 부지조성 완료하고 1백48개 공공기관 순차 이전

지난 11월 16일 제주혁신도시에서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 중 처음으로 준공식을 가진 데 이어, 11월 28일에는 한국관광공사가 강원혁신도시에서 본사 이전을 위한 착공식을 가지는 등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수립했다.

2005년 당시 수도권에 있는 1백75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하면서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1백48개 기관으로 조정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10개 혁신도시 지역에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산·학·연(産·學·研) 클러스터를 두어 자생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기관은 1백21개이며, 이미 1백2개 기관이 청사를 착공한 상태로,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9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올해 말까지 제주의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을 포함 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모든 이전 기관이 청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공사의 40퍼센트 3조6천억 지역업체서 맡아

정부는 이전 청사 신축 시 공사 금액의 40퍼센트 이상을 지역업체들이 공사를 맡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전 신청사 건축비 약 9조2천억원의 40퍼센트인 3조6천억원 이상에 대해 지역업체의 참여가 보장되어 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백48개 이전 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는 11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건설되고 있다. 수도권과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선 충남은 제외되었고, 광주와 전남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 중이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11월 28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 신청사 착공식에 참석해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위 사진은 신청사 조감도.

11월 말 현재 혁신도시 부지 조성은 전국 평균 95.5퍼센트로, 대부분의 도시에서 연내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혁신도시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범죄예방기법(CPTED)과 공공디자인을 도입하는 등 선진 도시건설 기법을 도입해 효율성과 미적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저감형 건축, 자전거도로 확충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업무효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도시 주택, 교육·문화복지 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클러스터에는 이전 기관, 지역의 전략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유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혁신도시를 광역 경제권 내의 거점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G

글·이상흔 기자

도태호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혁신도시 완성되면 지방의 세계화도 촉진"

국토해양부 도태호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도시 건설에 이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도시별로 처한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은 인구와 시설의 심각한 과밀 현상에 시달리고 있고, 지방과 수도권의 발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이 되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세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재가 지방으로 골고루 분산되고,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들도 자기 지역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도 높아집니다."

원래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목표가 아닌가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기관 통폐합과 이전지역 재조정,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유 부동산의 매각 부진 등의 이유로 2012년 이전 완료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건설은 대부분 올해 안에 완공이 가능하며, 이전 청사는 연말까지 대부분 착공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공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존 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모든 사업이 2014년 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전되는 공공기관 청사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설한다면서요.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공공기관 청사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설계됐습니다. 현행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제곱미터당 3백 킬로와트)보다 높은 수준에 맞추어 건설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건축물이 효율 5등급 수준인 연간 제곱미터당 5백 킬로와트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효율이 50퍼센트 이상 향상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혁신도시별로 1개 시범사업 기관은 '초에너지 절약형(제곱미터당 1백50킬로와트 내외)'으로 건축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녹색건축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도태호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혁신도시는 지역의 성장거점이 되어 지방 균형발전과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문제와 문화시설 부족, 자녀교육 문제는.

"정부는 가족 동반이주 촉진을 위해 아파트 등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이전 시점에 맞추어 특목고를 비롯하여 총 55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도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중·소형 평형(60~85제곱미터)의 공동주택 용지와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 지휘하면서 보람이나 어려운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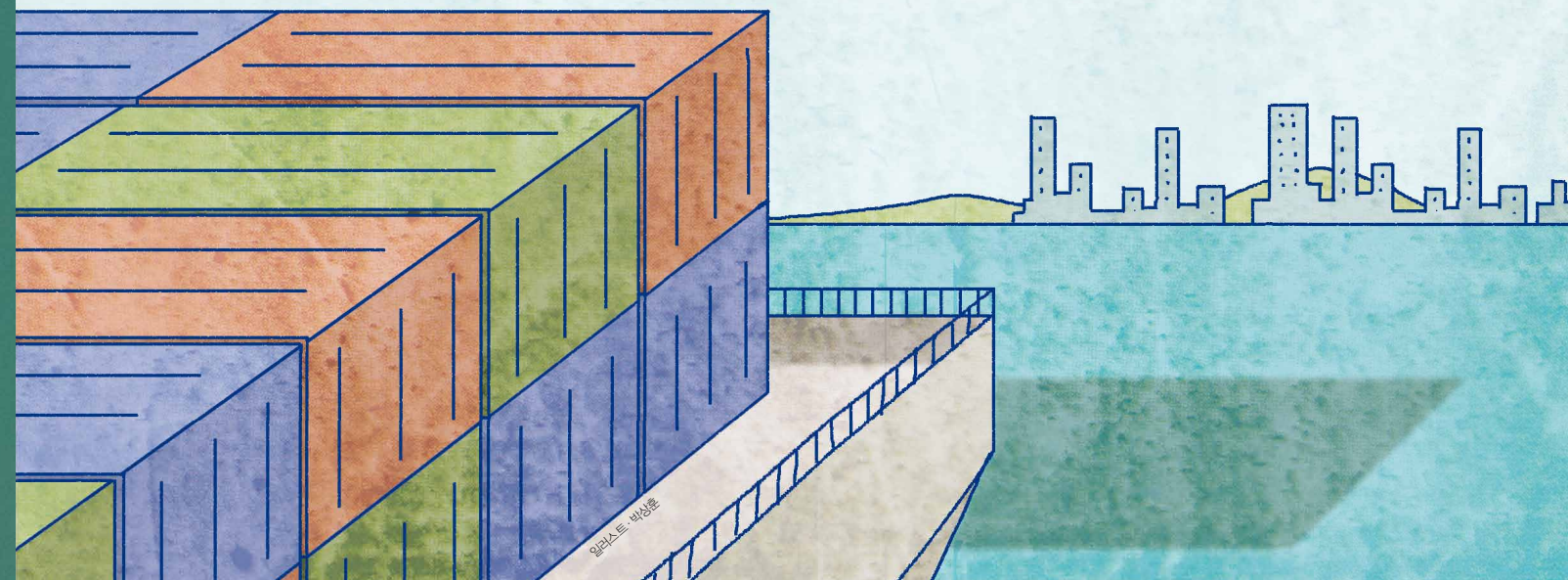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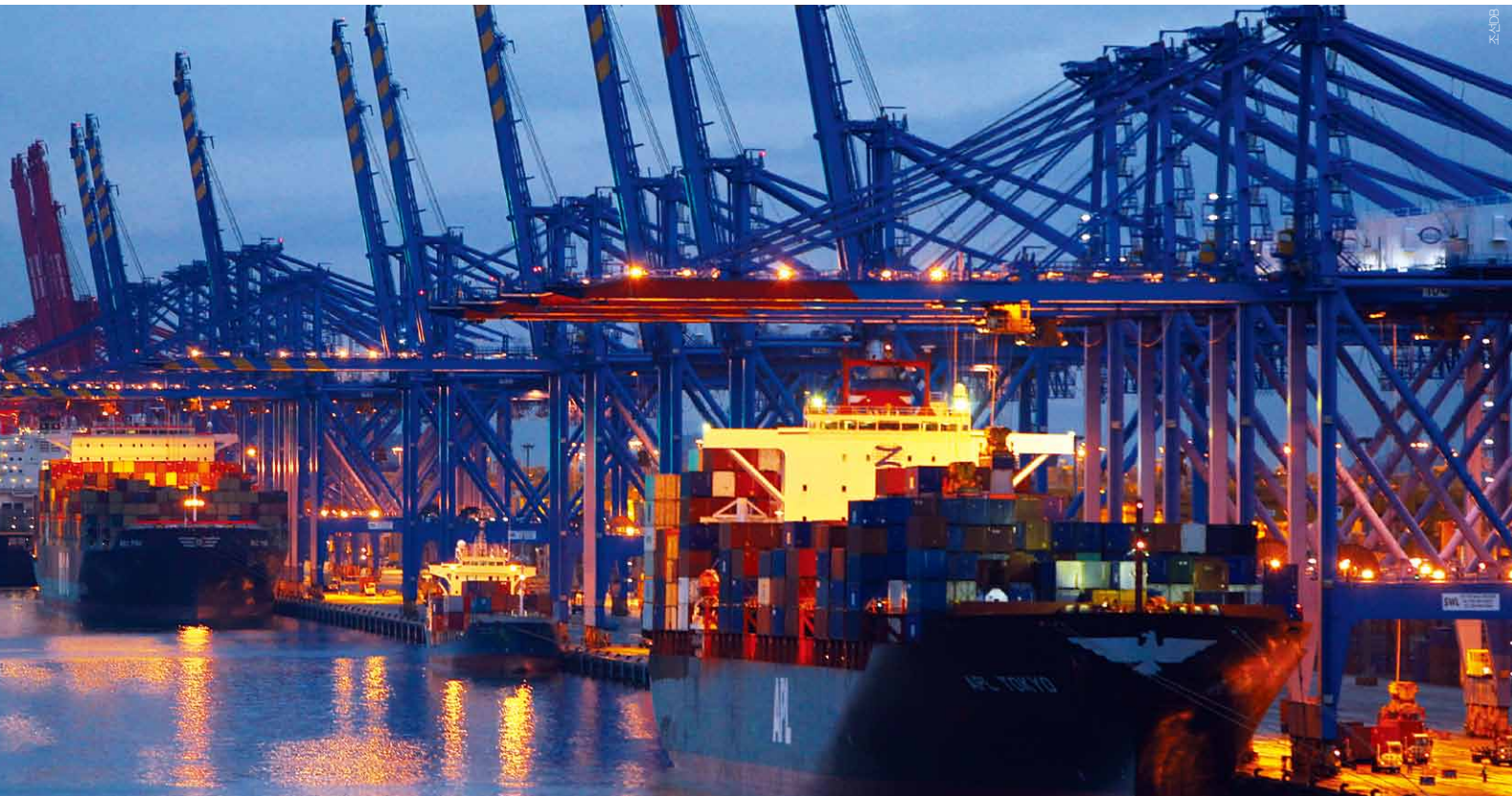
"본 사업은 지역의 공생발전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선례가 없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전 기관, 노조 등 모든 당사자의 협력과 배려, 상호 지원이 필요합니다." G

글·이상흔 기자

기획특집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가자 대한민국은 할 수 있습니다

끝 모를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12월 중 다시 한 번 연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8강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무역 1조 달러'란
신기원을 열며 반세기 만에 수출 5천 배의 신화를 썼습니다.
무역의 날인 12월 5일을 맞아
수출 역군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낼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작업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주조 · 금형 ·
열처리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해 온 뿌리기업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제조업 전사들입니다.

수출·입 컨테이너 선적과 하역으로 밤낮없이 분주한 부산신항. 우리나라는 올 12월 중 또 다시 연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이탈리아 제치고 세계 8강에 첫 진입

글로벌 경기둔화 속 10월 현재 무역수지 9개월 연속 흑자행진

우리나라가 올해 또다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거둔 성과란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수출에 나선 지 반세기 만에 거둔 이러한 성과는 많은 수출기업과 종사자들의 노력, 그리고 3D산업으로 불리면서도 소중한 기술노하우를 지키며 제 역할을 해 온 뿌리기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유럽의 '미운 오리새끼' 그리스가 지나고 나니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다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출)' 우려가 잦아드니 미국의 '재정절벽' 논의가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지루하다 못해 암담할 정도로 세계 경기침체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우리나라의 2년 연속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이 유력하다는 소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1월 26일 홍석우 장관 주재로 올해 수출을 최종 점검하고 내년도 수출여건 진단을 위한 업종별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홍석우 장관은 이 자리에서 "12월 중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 시점은 지난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일인 12월 5일보다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1~9월 무역규모는 7천9백79억 달러로 영국에 이어 세계 8위에 오르며 올해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처음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 및 전망'을 보면 세계적으로 수출과 교역이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특히 올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퍼센트 증가한 4백72억 달러, 수입은 1.5퍼센트 증가한 4백3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입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9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다. 또한 수출은 6월 이후 4개월 만에, 수입은 2월 이후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감소 보이던 수출·수입 모두 증가세로 전환

올해 세계 교역량을 들여다보면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 및 교역 감소가 뚜렷하다. 지식경제부가 집계한 주요 70개국 교역증가율은 ▲3월 0.6퍼센트 ▲4월 -1.2퍼센트 ▲6월 -3.6퍼센트 ▲8월 -5.8퍼센트 ▲9월 -3.7퍼센트 등으로 저조하다.

우리나라도 ▲7월 -8.7퍼센트 ▲8월 -6.0퍼센트 ▲9월 -2.3퍼센트였으나 10월 들어 1.1퍼센트를 기록,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난 1~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퍼센트 감소한 4천5백54억 달러, 수입은 0.7퍼센트 감소한 4천3백3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백2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수요 회복 부진과 전 세계적인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기록을 수립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지역적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기여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석유화학과 주요 정보통신(IT) 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선박·자동차·철강 등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플러스로 전환한 10월의 수출증감률을 놓고 볼 때 전년 동월 대비 ▲석유제품 27.7퍼센트 ▲무선통신기기 18.6퍼센트 ▲석유화학 6.9퍼센트 ▲반도체 6.7퍼센트 ▲LCD 1.6퍼센트 상승 등을 기록했다. 자동차부품(-1.9퍼센트), 자동차(-3.5퍼센트), 철강(-10.7퍼센트), 선박(-29.7) 등은 비록 지난해보다 수출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요 수출품목으로 기여했다.

정부는 제49회 무역의 날인 12월 5일, 우리나라를 세계 8강의 무역대국으로 이끄는 데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먼저 수출에 직접 기여한 업체 대표자와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하고, 당해 수출실적이 1백만 달러가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의 탑(총 38종)'을 시상한다. 이와 함께 해외투자 진출과 효율적인 수입, 해외자원 개발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 유공자 등도 수상자 명단에 포함된다.

전세계 무역규모 순위 (단위 : 억달러)

순위	2012년 (1~9월)	2012년(1~9월) 무역규모	전년대비 증감	2011년
1	미국	29,027	4.4%	미국
2	중국	28,425	6.2%	중국
3	독일	19,302	-6.3%	독일
4	일본	12,772	3.0%	일본
5	프랑스	9,274	-6.0%	프랑스
6	네덜란드	9,237	-3.2%	네덜란드
7	영국	8,574	-1.7%	영국
8	한국	7,979	-1.3%	이탈리아
9	이탈리아	7,371	-10.3%	한국
10	홍콩	6,942	2.4%	홍콩

자료 지식경제부

이날 유공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하지만 박수를 보내야 할 '숨은 유공자'들이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일등공신인 뿌리산업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를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이다. 최종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한다.

12월 5일 무역의 날 수출유공자 포상

정부는 지난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경기도 안산에 한국뿌리산업진흥센터를 개설하는 등 주력산업에 가려 그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뿌리산업 육성에 힘써 왔다.

지난 9월 28일 개최된 '2012 뿌리산업 진흥페스티벌'에서는 뿌리기술의 계승과 발전에 공헌해 온 제일정공(1959년 설립·TV금형 전문기업)과 화신테크(1985년 설립·자동차 금형 전문기업)가 처음으로 '뿌리기업 명가'에 선정됐다. 또 같은 날 열린 뿌리기술 경기대회에서는 경일금속이 대통령상을, 삼천리금속 등 4개 기업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차량 1대 생산 시 6대 뿌리산업 관련 비중이 부품 수 기준 90퍼센트(2만2천5백개), 무게 기준 86퍼센트(1.36톤)에 달한다. 올해 다시 한 번 무역 1조 달러 달성 기록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성한 가지와 열매를 뒷받침해 준 2만5천개의 뿌리기업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G

글·박경아 기자

석유화학산업의 전초기지인 울산 석유화학공단의 모습. 석유제품에 이어 석유화학제품 수출도 신흥국의 수요 증가와 국내 업체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산유국 아닌데"… 반도체 제치고 수출 1위

수입 원유 54퍼센트 되팔아… 무역 기여도 17퍼센트 '효과'

올해 석유제품은 조선·자동차·반도체를 제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제품에서 파생된 석유화학제품도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자동차, 전자, 건설, 섬유 등 주력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기도 하다.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견인하고 있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 실적과 전망을 살펴본다.

지식경제부가 집계한 10월 수출입동향에서 '석유제품'은 전년동기 대비 27.7퍼센트의 수출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51억9천6백만 달러로 반도체 46억 달러를 제치고 우리나라 13대 수출 주력 품목 중에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백6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퍼센트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석유제품을 가공하여 만든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10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6.9퍼센트가 증가한 39억 달러(1~10월 누적: 3백81억 달러)로 무선통신기기(18.6퍼센트), 가전(7.0퍼센트)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출증가 목록에 올랐다.

올 들어 최고의 수출 효자품목 떠올라

'석유산업'은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여 가솔린, 나프타(납사), 등유, 경유, 벙커C유 등의 석유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산업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석유제품이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각종 기초유분(에틸렌, 프로필렌, BTX 등) 혹은 중간원료를 생산하고, 나아가 그 원료로부터 석유화학 소재인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의 원료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지식경제부는 석유제품 수출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중남미와 아세안(ASEAN) 등 신흥국의 수요 증가와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중남미 지역의 수출이 전년 대비 1백6.9퍼센트가 늘어났고, 이어 ASEAN 72.1퍼센트, 일본 13.2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단가는 2011년 10월에 배럴당 1백19달러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백24달러로 상승했다.

지식경제부는 또한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합성수지와 합섬원료 수출은 중동산과의 가격경쟁 심화로 감소하였으나,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 수출 확대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고 분석했다. 기초유분은 중국 내 공장 증설로 올해 들어 꾸준하게 수출이 증가해 왔다.

석유제품은 유가상승·수출다변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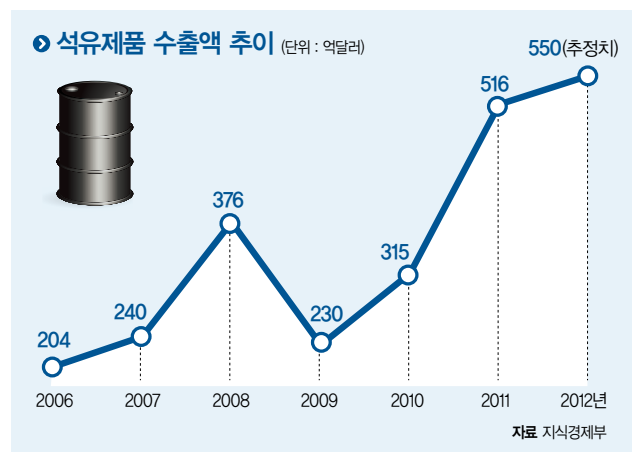
대한석유협회는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은 올해 들어 10개월째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제품은 2011년 5백16억 달러의 수출 실적으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제품 가운데 선박 5백65억 달러에 이어 전체 2위에 올랐지만, 올해 들어 최고의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른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석유제품의 수출 호조가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국내 정유기업들의 수출 다변화 노력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최대 수요처인 중국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무려 18퍼센트나 감소했지만,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으로 수출은 72퍼센트나 증가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석유제품이 국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0퍼센트(반도체는 약 9퍼센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우리나라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액이 원유 수입액의 54퍼센트에 이르는데 이는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17퍼센트 정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석유제품의 수출 상승세는 올해까지 이어져 선박류, 자동차, 반도체, 일반기계 등의 주요수출 품목을 제치고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협회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5백50억 달러에 달해 올해 수출품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석유제품이 한국 수출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정유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석유화학 분야도 신흥국 수요와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수출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개발에 따른 석유화학 수요 증가로 유화제품(수지, 원료, 고무 등) 수요가 2001년부터 연평균 10.8퍼센트씩 성장하여 2011년에는 1억3천만 톤에 이르렀다. 이는 국내 석유와 석유화학 업체가 2000년대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확대에 대응해 온 결과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2013년의 주요 산업에 대한 경기를 전망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이란 보고서에서 "건설업과 조선업, 자동차 산업 등의 경기가 하강이나 불황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석유화학산업은 국내경기 회복과 중국 등 신흥시장 수출에 힘입어 2013년에도 다른 업종에 비해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화제품은 저가공세 등 환경급변이 변수

하지만 석유화학 수출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정범식 회장은 지난 10월 31일 '화학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중동지역 경쟁사들의 저가 공세와 북미지역의 셰일가스(혈암에 함유된 천연가스) 생산 확대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셰일가스 같은 천연가스 시대의 도래에 따른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저가제품에 대응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나 원료가 저렴한 지역의 현지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주요 타깃 산업인 석유화학 업종은 탄소저감 같은 환경문제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충고도 덧붙였다.

글·이상흔 기자

지난 5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 III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들어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애플의 벽 넘은 스마트폰 '늦둥이 효자'

새로운 시장변화에 발빠른 대응… 3대 수출품목으로 우뚝

한국은 자타공인 IT 강국이다. IT 분야에서도 휴대폰의 성장세는 독보적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수출은 휴대폰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스마트폰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애플과 유럽 무선통신기기 업체들을 멀찌감치 따돌리면서 무선통신기기는 한국을 먹여살리는 분야가 됐다.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정보기술(IT)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1월 7일 발표한 '10월 IT산업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백45억5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1퍼센트 늘었다. 지난달에 비해서도 3.4퍼센트 증가했다. 이는 기존 최대 실적인 2010년 10월의 1백40억9천8백만 달러를 넘어서는 수치다.

수출 실적을 이끈 것은 휴대폰이다. 지난달 휴대폰 수출은 삼성전자 갤럭시S3, LG전자 옵티머스 등 스마트폰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퍼센트 증가한 22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수출 실적은 두 달 연속 20억 달러대를 기록했다. 해외생산 비중의 소폭 감소와 전략 스마트폰의 유럽 수출 호조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갤럭시S3, 옵티머스 시리즈 등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 실적 두 달 연속 20억 달러 넘어서

실제 스마트폰 수출은 13억 달러로 전달보다 32퍼센트 급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은 3분기 점유율 39.5퍼센트로 애플과의 격차를 더 키우며 6분기 연속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양재룡 금융통계부장은 "11월에도 무선통신기기 등 수출 호조로 전체 무역수지가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출 실적을 포함한 전체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5억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6퍼센트 증가했다. 지식경제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저효과, 계절적 성수기를 겨냥한 전략적 모델 출시 확대로 전년대비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베트남 등 현지 생산거점으로의 부품 수출도 완만한 성장세가 나타난 것도 요인 가운데 하나다.

올해 10월까지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데 기여한 외부요인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 체결 7개월 후인 2012년 10월 현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미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38퍼센트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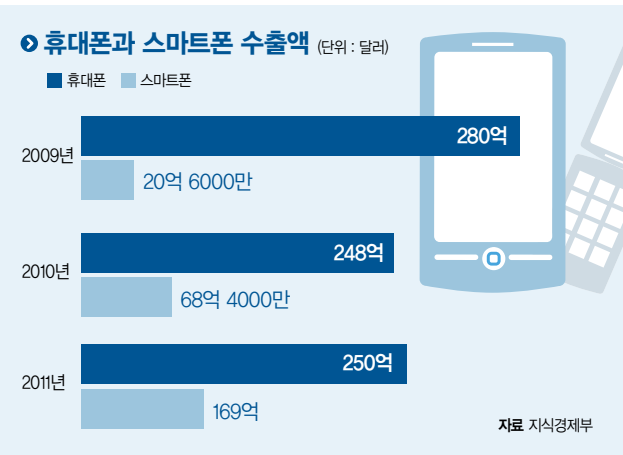
무선통신기기는 IT강국의 면모가 반영된 수출품목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수출 강국의 초석이 된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CDMA)'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어 2005년에는 내 손안의 TV를 실현시킨 '지상파 DMB'와 휴대 인터넷인 '와이브로(WiBro)'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써 'IT강국 코리아'로서의 국가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계 아홉번째로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기여한 핵심 산업 또한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00년 수출품목 6위에 오른 뒤 줄곧 상승, 현재는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 2천억 달러를 돌파한 2004년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자동차 및 반도체와 함께 2백65억~2백62억 달러로 나란히 1~3위를 차지하며 9년 만에 수출액 2배 증가의 위업을 만들어 냈다. 수출 4천억 달러를 돌파한 2008년 역시 무선통신기기는 선박해양구조물(4백32억달러), 석유제품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휴대폰의 경우 이미 세계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휴대폰의 명성은 전세계 어디를 가나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 2백50억 달러 규모를 수출, 전년도와 비슷한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고속데이터하향패킷접속(HSDPA), 와이브로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 확산과 전세계적인 휴대전화 세대교체로 전망은 더없이 밝다.

무선통신기기가 여전히 한국 수출의 큰 축이지만, 무선통신기기를 포함 IT 수출은 지난 몇 해 전부터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

지식경제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가전·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 5대 수출 주력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0.1퍼센트에서 계속 늘어 2004년 34.1퍼센트에 달했으나, 2005년 이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1년엔 23.0퍼센트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대폰, 가전, 컴퓨터 등 주요 IT품목의 해외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자동차·기계·철강·선박·섬유 등 5대 주력 제조업 품목의 수출 비중은 2004년 36.9퍼센트를 차지한 이후 지속 상승해 2005년 38.2퍼센트, 2007년 39.0퍼센트, 2008년 40.9퍼센트, 2010년 39.1퍼센트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혁신 지속할 '기가코리아' 계획 발표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국가 차원의 차세대 IT 혁신사업을 발표했다. '기가코리아(Giga KOREA)'가 그것으로 2020년까지 스마트코리아를 실현하고 IT 선도국가로서의 국가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포석이 담겼다.

기가코리아는 개별 정부부처의 생각을 담아 내는 데서 과감히 벗어나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내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한목소리를 담아 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해 IT강국의 신화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기가코리아의 최종 목표는 2020년 모든 사용자가 기가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품질의 디지털 정보를 자유롭게 유통·서비스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 무선 인터넷 속도를 40배 이상인 기가급으로 끌어올려 실감형 3D, 4D, 홀로그램 콘텐츠를 끊김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IT 인프라 자체를 혁신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G 글·김남성 기자

두산중공업 직원이 오만 제2의 항만 소하르에 설치된 담수플랜트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공기단축 귀재들, 7백억 달러 수주 거머쥔다

아시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 중동 비중 35퍼센트로 떨어져

정부는 오는 2014년 플랜트 분야 해외수주액 1천억 달러 달성을 통해 '플랜트 G5' 국가로 진입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은 국제 플랜트 시장에서 2백86억 달러어치를 수주했고 연말까지 많게는 7백억 달러 수주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현황을 토대로 플랜트 강국으로 성장해 가는 한국의 경쟁력을 짚어 봤다.

우리나라가 해외 건설시장에 처음 진출한 건 지난 1965년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였다. 이로부터 47년이 지난 올해 6월 우리는 해외 건설시장에서 누적수주액 기준으로 5천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54퍼센트인 2천6백83억 달러가 플랜트 건설로 벌어들인 외화였다. 해외 건설시장에서 플랜트 분야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플랜트 수주액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해외 대형 플랜트 사업이 일정대로 순항하면서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7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아랍에미리트(UAE),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서 연이은 프로젝트 수주로 6월 한 달에만 1백36억 달러를 수주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삼성엔지니어링이 수주한 '카본 블랙 앤 코커 프로젝트(Carbon Black & Delayed Coker Project)'는 27억 달러 규모의 대형 사업이었다.

해외건설서 대형 플랜트 비중 계속 커져

올해는 또 국가 간 산업협력 등이 진전된 결과 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의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 플랜트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경향도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중동 플랜트 수주가 전체의 50퍼센트에 달할 정도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35퍼센트 선으로 떨어졌다.

특히 아시아 수주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호주에서 발주한 대형 해양플랜트 사업인 INPEX CPF(해양가스처리설비)는 국내 한 대기업이 수주했고 한국·카자흐스탄 산업협력의 결과물인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따냈다. 카자흐스탄 발전소 건설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참여하고 총 21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올해 상반기 중동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수는 다소 줄었다.

중남미 지역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성과도 있었다. 현대건설이 올 상반기에 14억 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 크루즈 정유공장 건설 건을 확보했고 포스코건설도 12억 달러를 투자하는 칠레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원천기술·디벨로퍼 역량 확보는 과제

설비 분야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라빅 정유 및 석유화학단지 2단계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인해 석유화학 분야 실적이 크게 늘었다. 해양플랜트 분야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25퍼센트 가량 줄어든 90억 달러 수준을 맴돌았다.

정부는 제2의 중동붐을 맞아 지난 5월 플랜트를 포함해 전략산업에 대한 '중동진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되는 해양플랜트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랜트 산업 발전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플랜트 원천기술 확보, 엔지니어링 역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수행실적(Track Record) 확보 등 산업 내실화를 위해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 한 대형 건설사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바이오가스 플랜트처럼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플랜트 분야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첨단장비를 동원,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국내 플랜트 업체들은 벡텔 등 해외 굴지의 플랜트 전문기업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플랜트업계가 당면한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리 기업들은 플랜트 중에서도 시공 위주의 역할을 맡고 있어서 디벨로퍼(Developer)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기적 관점의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벡텔이나 KBR과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플랜트 사업 기획에서부터 운영관리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2012년 상반기 주요 수주 프로젝트 (10억 달러 이상)

수주기업	분야	프로젝트명	발주국	발주금액 (백만 달러)
삼성중공업	해양	호주 INPEX 프로젝트 CPF 1기	호주	2,727
삼성엔지니어링	석유화학	Carbon Black & Delayed Coker Project	UAE	2,477
삼성엔지니어링	담수&발전	Balkhash Thermal Power Plant Project	카자흐스탄	2,078
대우조선해양	해양	FPSO 1기	아시아	1,998
GS건설	석유화학	라빅 정유 및 석유화학단지 2단계 –PKG 3&4	사우디	1,793
현대건설	산업시설	Ma'aden Alumina Refinery Project	사우디	1,502
현대건설	Oil&Gas	Puerto La Cruz Refinery Project	베네수엘라	1,409
포스코건설	담수&발전	석탄화력발전소 2기 (540MW&400MW)	칠레	1,223
대우조선해양	해양	Drill Ship 2기	유럽지역 선주	1,107
삼성중공업	해양	Drill Ship 2기	미주	1,100

자료 지식경제부

또 중동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판으로 '제2의 중동'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따라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지향하는 타깃(Target) 국가를 기초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다. 제2의 중동을 아시아, 동유럽, 북아프리카 등의 신흥시장에 맞춰 두번째 신화를 이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유화에서 에너지 분야로 다변화할 필요도

그동안 국내 플랜트 업계가 석유화학 분야에 치중해 왔지만 이제는 발전, 가스 등 에너지 관련 플랜트로 다변화해야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현실을 감안, 자원확보와 플랜트 사업을 연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최근 태국 마타풋 석유화학 플랜트를 수주하고 나이지리아 해상유전 개발권을 확보한 것은 국내 업체 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공업체 간 또는 석유공사, 한전 등과 팀을 구성해 공동으로 해외 플랜트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도 고민해 볼 때다. G

글·김대현 기자

아산 탕정단지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직원이 완성된 LCD패널을 검사하고 있다.

세계 IT기술 선도… 한국 경제 이끈 ‘쌍끌이’

과감한 투자·기술개발로 세계적 불황에도 꾸준한 성장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반도체와 LCD 분야는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는 주된 원동력이었다. 1994년 삼성전자가 256M D램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시작된 반도체 신화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LCD 산업 또한 세계 TV시장을 국내 기업들이 쥐락펴락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그 경쟁력을 찾기 위해 반도체·LCD 산업의 발전 궤적을 짚어봤다.

반도체와 LCD(액정표시장치) 산업은 건설과 섬유 산업 이후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 대표산업이다.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두 산업의 눈부신 약진 때문이었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처럼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세계적 경기불황 속에서도 두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거듭하며, 대한민국 산업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전자 산업의 밑거름이 됐다. 반도체는 관련 통계가 정확히 집계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2008, 2009, 2011년)을 제외하고는 수출 1위 품목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처음 뛰어든 것은 1965년 고미전자산업의 설립이다. 미국 코미(Commy)사와 합작 설립된 이 회사는 트랜지스터를 조립 생산하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씨앗이 됐다. 1980년대에 이르러 삼성과 현대 국내 두 대표기업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면서 발전은 본격화됐다.

맨땅에서 시작해 이젠 세계 1등 산업

그 첫번째 결실은 1983년 삼성반도체통신의 64K D램 개발 성공이었다. 삼성은 반도체 사업 진출 선언 6개월 만에 64K D램 개발에 성공했다. 당시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일부 기업만 가능했던 고집적 메모리 반도체를 1년도 안 돼 개발한 것이다. 그리고 1994년 삼성은 256M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드디어 기술 자립에 성공한다. 양산 기술은 물론 메모리 집적 기술에서도 세계 정상을 확인하며 반도체 신화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가 해외에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한 것도 이쯤이었다. 국내 기업들은 과감한 양산 및 기술개발 투자에 힘입어 규모의 경쟁력을 만들어냈다. 반도체 수출액은 1992년 처음 1백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000년에는 2백6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특히 2000년에는 국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퍼센트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성장을 거듭했다. 2010년에는 5백억 달러 수출을 사상 처음 돌파하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인했다. 2010년 D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60퍼센트에 육박했다. 1992년 26퍼센트 수준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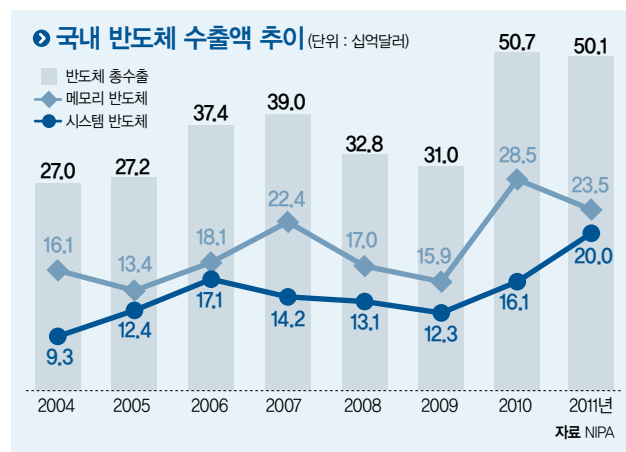
반도체는 LCD와 휴대전화 성공도 이끌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차지하는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2002년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의 뒤를 이어 2위에 역대 처음 등극했다. 1년 만에 도시바, ST마이크로, TI를 한꺼번에 제치고 일약 5위에서 2위로 급부상한 것이다.

SK하이닉스도 2006년 이후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10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강국으로 빠르게 부상한 배경에는 대기업의 공격적인 투자와 정부의 적극적 뒷받침이 있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우리 기업들이 LCD 산업과 휴대전화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 LCD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한민국의 전략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2009년에는 2백56억 달러의 수출실적(품목별 수출비중 4위)을 올리며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삼성과 LG 두 기업이 경쟁하며 대한민국 LCD 산업을 이끌었다. 두 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이 분야에 잔뼈가 굵은 일본기업을 제쳤다.

삼성과 LG 등이 TV 분야에서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선두주자들을 따라잡은 것도 LCD 산업의 기술개발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현재 50퍼센트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글로벌 패널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최근 LCD 산업은 TV에서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로 옮겨오고 있다. 작은 화면에서 TV에 준하는 화질을 구현하고, 보다 획기적인 기술을 탑재하는 게 디스플레이 산업의 숙명이다. 국내 업체는 이를 위한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LCD 시장에 대해서 올해 초만 해도 비관적인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LCD보다는 OLED가 대세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성과 LG 두 회사 모두 LCD 사업을 축소하고 빨리 OLED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던 중 3분기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1·2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LG디스플레이는 3분기 2천6백52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CD 부문에서 1분기 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2분기에 흑자 전환한 데 이어 3분기에는 3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거뒀다.

최근 LCD 사업은 부쩍 늘어난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갈 정도로 잘되고 있다. 곤두박질치기만 했던 LCD 가격도 바닥을 딛고 올라서고 있다.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42인치 LCD 패널 값은 지난해 1분기 3백41달러에서 올 1분기 2백78달러대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다시 꾸준히 상승하며 3분기 평균 2백88달러대까지 올랐다.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반격은 신경 써야

물론 불안요소도 있다. 중국기업들의 추격이 그것이다. 현재 중국은 LCD 수요가 가장 많은 시장이다. 이에 중국은 관세를 올려가며 타국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도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활발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 역시 재팬 디스플레이와 샤프가 중소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과거 영광 재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때문에 한국 기업이 더욱 신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플렉서블 LCD 등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는 가운데서 한국 기업들이 자칫 방심할 경우 언제 중국과 일본 기업에 밀려날지 모르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글·박혁진 (주간조선 기자)

인천항에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가 줄지어 서 있다. 자동차 수출은 EU시장 위축 등 글로벌 악재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완성차 북중미서 선전… 부품도 선방

10월 수출은 다소 주춤했지만 올해 전체적으론 증가

EU시장 위축 등 글로벌 악재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 전선이 예년 같진 않다. 하지만 품질 개선과 브랜드 가치 향상 등 내부 경쟁력 측면에서는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품질 개선과 브랜드 가치 확산,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통해 반등을 노리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지난 10월 기준 완성차와 부품을 합쳐 총 58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해 전년 동월보다 3퍼센트 감소했다. EU시장 침체와 공급물량 차질로 4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올해 10개월 전체 수출액은 6.1퍼센트 증가했다.

10월 한 달 완성차 수출은 38억7천만 달러로 전년(40억1천만 달러)보다 3.5퍼센트 줄었으며, 자동차 부품은 19억3천만 달러로 1.9퍼센트 감소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EU시장 위축 ▲주말 특근 일수 감소 ▲국내 공장 합리화 및 증설 공사에 따른 생산 감소 등이 꼽힌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0월 완성차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EU시장의 위축, 일부 업체의 공급물량 부족으로 전년보다 6.3퍼센트 감소한 25만8천361대를 기록했다.

품질 향상·FTA 효과로 증가세 높일 수도

그러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수출은 총 2백59만7천2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퍼센트 증가했다. 증가세는 대폭 둔화됐지만, 국산차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높아진 위상, FTA 효과, 전략 차종 투입 확대 등은 대외 불확실성이 개선될 경우 수출 증가세를 높일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JD파워가 지난 10월 실시한 '2012년 중국 신차품질조사'에서 현대·기아차의 YF쏘나타, EF쏘나타, 프라이드가 각각 '고급형 중형차급', '경제형 중형차급', '소형차급'에서 1위에 선정돼 추후 중국 시장에 미칠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가장 많이 수출된 승용차 모델은 아반떼다. 10월 말까지 총 20만2천여 대를 수출했으며, 20만1천여 대를 수출한 액센트가 뒤를 이었다. 프라이드, 포르테, 투싼 등 10대 모델을 모두 합치면 1백48만2천여 대 수출을 기록했으며, 전체 승용차 수출 대수는 2백47만여 대다.

국가별로 보면 북미시장 수출은 증가세다. '올해의 차' 선정을 바탕으로 한 판매호조,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 한·미FTA를 통한 대외신뢰도 향상 등으로 9월 말까지 전년(약 56만 대)보다 20.7퍼센트 증가한 67만6천여 대를 수출했다. 전 세계 수출 중 22퍼센트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 미국에선 전년보다 17.9퍼센트 증가한 50만9천여 대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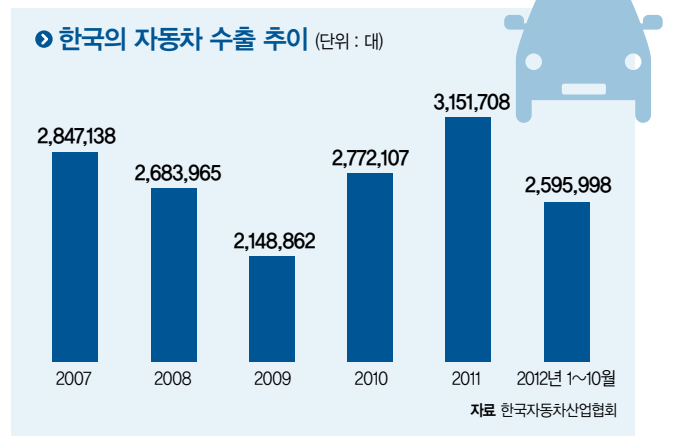
유럽의 경우 러시아에서의 국산차 인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자동차 수요 위축 등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년(51만1천여 대)보다 0.5퍼센트 감소해 50만8천여 대를 기록했다.

미국·중국내 판매시장 규모는 증가… EU는 감소

중동에선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란, 시리아 등 정정이 불안한 국가 수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년(45만여 대)보다 0.2퍼센트 감소한 44만9천여 대를 수출했다.

중남미는 공업세 인상 여파로 최대 시장인 브라질 수출이 대폭 감소(48.5퍼센트)했으며, 아프리카는 중고차 수입을 금지한 알제리에서의 국산차 인기 상승과 리비아 수출회복세 등에 힘입어 21.4퍼센트 증가한 14만6천여 대를 수출했다.

세계 주요국 시장 규모를 보면 올해 9월까지 미국에서 총 1천86만3천여 대, EU에서 총 9백72만4천여 대, 중국에서 총 1천1백26만9천여 대의 승용차가 판매됐다. 미국과 중국은 전년보다 각각 14.5퍼센트, 6.9퍼센트 증가했지만, EU는 7.2퍼센트 감소한 수치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중국의 승용차 판매는 연료비 상승, 경기둔화 우려, 반일시위에 따른 일본차 판매 위축 등 요인으로 전년보다 0.5퍼센트 감소한 1백31만5천여 대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신공장 가동과 신차 출시 효과로 전년보다 9.4퍼센트 증가한 12만7천여 대를 판매해 9.7퍼센트 점유율을 차지했다.

"미국·유럽 외 신흥시장 개척"

최근 포스코경영연구소(포스리)가 내놓은 '2013년 경제·산업전망'에 따르면, 내년에도 글로벌 경제가 선진국 경기 부진 심화와 신흥국 회복 지연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는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 경제 경착륙, 이란발 유가 급등 우려 등으로 세계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내년 연간 자동차 수출도 올해보다 3퍼센트 감소한 3백5만 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악재로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품질 개선과 브랜드 가치 향상 등 내부 경쟁력 측면에서는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와 기아가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그룹이 선정한 '2012 세계 1백대 브랜드'에 동시 선정되는 등 브랜드 경쟁력이 향상된 것은 한국차의 큰 강점"이라며 "미국과 유럽 외 신흥시장 중심으로 수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지난 11월 28일 지식경제부와 KOTRA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글로벌 완성차업체 납품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코리아 오토 파트스 파크(Korea Auto Parts Park, 이하 KAAP)'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시작했다.

미국 디트로이트(2012년 5월 14일 개소)에 이은 두번째 KAPP로, 입주 기업 초기 정착, 신규 바이어 발굴, 회의실과 전시공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중소부품업체의 해외 수주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G

글·김정우 (월간조선 기자)

대구시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1차단지에 위치한 '2012 뿌리기업 명가' 화신테크 공장. 각기 다른 프레스 금형들을 제작하고 있는 작업장마다 오래된 뿌리기업다운 내공이 묻어난다.

기술력으로 지켜온 한국제조업의 뿌리

올해 화신테크·제일정공 선정… 금형 등 6개 분야서 가업승계한 중소기업

사출금형 전문업체인 제일정공과 프레스금형 전문업체인 화신테크가 '2012 뿌리기업 명가' 기업으로 뽑혀 각각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처음 뿌리기업 명가 포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일등공신이면서도 그동안 주력산업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뿌리산업을 재조명하고, 뿌리산업의 기술노하우와 열정이 젊은 세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구시 달서구의 성서산업단지 1차 단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화신테크의 널찍한 공장 안. 제법 쌀쌀한 날씨였던 지난 11월 28일 방문한 화신테크 공장 안은 각종 금형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계 소음이 가득했다.

약 7천6백평방미터의 널찍한 면적에, 천장은 보통 건물 3층 높이인 공장 안 곳곳은 자동차 외형을 이루는 프레스 금형 제작에 바빴다. 공장 내부는 사무실 온도와 사뭇 차이가 나 곳곳에서 선풍기형 난방기를 틀어놓고 작업 중이었다.

'2012 뿌리기업 명가' 국무총리 표창자인 화신테크는 자동차용 프레스 금형의 설계·제조 전문회사다.

불모지에 국내 최고의 전문기업 세워

지난해부터 뿌리기업 명가를 선정해 온 지식경제부는 금형·소성가공·열처리·용접·주조·표면처리 등 6대 뿌리산업 분야에서 '20년 이상된 중소기업으로서 2대 이상 뿌리산업 분야 가업을 승계한 기업' 중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 뿌리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 명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창립 27년째를 맞는 화신테크는 정재형(81) 대표가 1985년 화신금형이란 명칭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1991년 화신테크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2006년부터 정 대표의 차남인 정유진(46) 대표가 부친의 뒤를 이어오고 있다.

정재형 대표는 요즘도 일주일에 2~3일씩 회사에 출근하며 불모지에서 국내 최고의 자동차 금형 프레스 전문기업을 세웠다는 열정과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의 단순 하청업체에 머물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며 연구개발을 병행해 온 화신테크는 자동차 금형 이외에도 특수금형 부문의 '하이드로포밍(고무막과 액압을 이용한 판금가공)'과 '핫 프레스포밍(열간 성형)'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시켜 포스코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2006년에는 우리나라 프레스 금형 전문업체 중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도 했다.

공장 건물 옆 사무동의 사무실에서 만난 정재형 대표는 먼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데 대해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뿌리산업은 정말 중요한 산업입니다. 많은 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제까지 걸어온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1등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화신테크 정재형 대표 "기술 세계에선 트릭이 통하지 않아요"

회사 설립 전까지 정재형 대표는 '섬유맨'이었다고 한다.

"당시 제가 다니던 제일모직은 남들이 부러워하던 '쩌렁쩌렁한' 회사였어요. 어느 날 유럽 연수를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 되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죄다 노인들뿐이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섬유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 귀국 후 사표를 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고 있던 때였다. 그래서 전혀 경험도 없던 자동차 부품 제작에 뛰어들었다.

"양복 대신 작업복 차림으로 출퇴근을 하고, 낡은 구두만 신으며 모은 월급을 다 털어 넣었지요. 잘 살아보자고, 산업화에 목을 매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려웠던 당시를 회상하는 정재형 대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우리보다 앞섰던 일본을 오가며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 하나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납품하던 자동차 제조사에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그걸 또 해결하면서 불량률을 줄여나갔지요. 언젠가부터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협력업체로 화신테크를 꼽게 되더군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프레스 금형 1세대임을 자처하는 정재형 화신테크 대표는 기술의 세계는 정직함과 성실함만이 통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영남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아들 정유진 대표는 올 시무식에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자동차 금형 프레스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을 내놓았다. 이미 지난 9월 미국 자동차 제조사와 29억6천6백만 원 규모의 금형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내년에는 대구시 달성군의 테크노폴리스 부지 2만6천평방미터를 매입해 공장을 증설하고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자동차 산업 위축에도 불구하고 3백50억원(2011년 약 3백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 화신테크는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시장에 진출해 오는 2015년이면 금형 및 자동차 부품 매출이 국내 6백억원, 해외 4백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의 세계에는 트릭이 통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내실을 다져온 것이 우리의 장점이라고 자부합니다. 요즘에야 주목을 받고, 테크노폴리스 부지도 배정받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걸어온 어려운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아들이 제 뒤를 이어 도약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노력으로 고객과 지역사회, 국가에 이바지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화신테크를 키우고 싶습니다."

뿌리기업의 99.9퍼센트(2만4천9백63개 업체)가 중소기업이고, 90퍼센트가 수요기업의 2~4차 협력사로 공급망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뿌리산업 종사자 수는 25만명, 전체 제조업 종사자(3백41만명)의 7.5퍼센트를 차지한다(2010년 통계청).

열악한 여건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기술력 하나로 승부하는 뿌리기업들. 이들의 모습을 화신테크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2조 달러 달성에 있어서 문화산업이 커다란 한 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호주 시드니를 강타한 K팝에 호주 팬들이 열광하고 있다.

문화산업 앞세워 2조 달러 시대 열자

문화상품의 특성은 강한 마케팅 효과… 관련 산업에 큰 영향력

한국은 지난해 무역 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후 2년 연속 1조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1조 달러를 돌파한 국가 가운데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은 1조 달러를 돌파한 후 주춤거린 반면 독일, 프랑스 등은 순항했다. 우리나라가 2조 달러 이상을 돌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전 세계에서 무역 총액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이 3조 달러, 독일이 2조 달러,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영국,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해외 시장 변화에 따라 1조 달러 클럽에서 잠시 후퇴했다 재진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년에도 1조 달러를 유지하는 저력을 보이며 2조 달러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1조 달러를 넘어선 나라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비 때마다 나름 성장 동인이 있었고 1조 달러에서 후퇴할 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상징적 숫자처럼 보이는 '조' 단위 선을 넘어서는 시점의 국가별 산업 구조, 통상정책, 시장 환경을 살펴보면 확연한 변화가 있었다.

거시적 지표의 융합이 시장확대 가져와

이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변화를 볼 수 있다. 주력 산업 구조의 변화, 기반 기술을 확보한 기업의 육성, 기업의 글로벌화, 해외 시장의 급격한 확대 현상 등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EU가 유럽 국가들 무역에 미친 영향을 들 수 있다. 독일이 2조 달러를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1조 달러를 돌파할 때 EU에 의한 시장 확대가 동인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영국은 창조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변경했고, 프랑스는 신산업을 발굴했으며, 독일은 R&D를 통한 기반 기술 확보 등과 같은 노력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나라도 1조 달러를 넘어서기 위해서 FTA 확대 및 적극적 활용,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강소기업 육성, 해외 시장의 다변화에 의한 신시장 개척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역 2조 달러로 가는 길로 어느 한 가지 정책을 대표 정책으로 짚어낼 수는 없다. 앞서 말했던 거시 지표 등 다양한 정책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함께 만들어갈 때에 무역 2조 달러 문은 비로소 열린다.

문화의 창의력은 산업구조 변화도 이끌어

이야기를 돌려 세계 속에서 우리의 문화산업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 문화산업이 우리나라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이끌어주는 커다란 한 축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소녀시대, 비스트, 빅뱅, 미쓰에이, 동방신기, 싸이 같은 가수들이 세계인들을 음악을 통해 하나로 묶어주고, 게임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문화적 동질감을 만들어내고, 드라마를 수출하면 세계 화장품 시장이 바뀌고, 김연아와 손연재가 입은 옷은 의류 시장을 바꾸고…. 영화, 음악, 드라마, 스포츠가 앞서 가면서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과 같은 상품무역 시장은 물론 의료와 관광 같은 서비스 무역 시장도 개척해 주고 있지 않은가.

문화산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상품으로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가 다른 제품들을 위한 마케팅 역할을 하고 있고 관련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해 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역 2조 달러로 가는 큰 길을 여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을 잘 모르던 국가와 국민들이 우리의 문화를 통해 한국을 바라보게 만드니 해외 시장 확대의 첨병이며, 문화상품이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의료, 관광과 같은 유관 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국내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니 글로벌화의 관문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높이고 IT 기술의 첨단화와 융합적 활용을 만들어낸다는 면에서 신산업 발굴의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 주력 산업 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조선, 석유제품 등 10대 주요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 이제는 60%까지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숨에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화상품이 관련 상품과 함께 균형을 잡아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이끄는 축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국은 2011년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한 후 2년 연속 1조 달러 국가가 됐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가 코엑스 일대에서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축하하고 있다

문화산업과 다른 산업 연계할 통합전략 필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육성해야 할 산업군이 많이 있지만 문화산업을 우선적인 육성 대상 산업으로 해야 할 것이다. 문화산업은 앞에서 말한 4대 지표를 충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연계되어 무역을 증대시키는 강력한 촉발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이 2조 달러로 발전해 가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문화산업이 자기 혼자만의 산업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화산업을 통하여 해외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한국의 유형·무형의 제품들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의류, 화장품, 의료, 관광, 전자제품 등과의 산업 간 연계는 물론 마케팅, 제품 현지화, 협상 등 해외진출 과정까지도 함께 하는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소통과 조화도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기회 제공과 조정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민간과 민간, 민간과 정부 간의 소통, 조화, 조정을 위한 코디네이터로서 학자들의 역할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글·이호건 청주대학교 교수(한국무역학회 회장)

일러스트 · 신용호

법제처 · 병무청 '가장 깨끗한 공공기관'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문화부는 13단계 수직상승 "중앙행정기관 중 최고 개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6백27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중요한 것은 공공분야의 부패가 선량한 국민의 권익을 해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법제처와 병무청이 중앙행정기관 각 분야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으로 조사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년 대비 청렴도 평가가 가장 개선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26일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6점으로, 설문조사 결과 민원인의 평가(8.10점)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소속직원(7.85점), 정책고객(6.86점) 평가 순이었다.

청렴도는 각 기관 주요 대민·대관업무(총 2천4백95개)의 민원인(16만8백54명), 소속직원(6만6천5백52명) 등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 산출했다.

기관유형별 청렴도 상위 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일반행정기관에서는 법제처가, 수사·단속·규제기관에서는 병무청이 각각 최고점수 기관으로 조사됐다.

민원인 1퍼센트 금품 등 제공 경험

중앙행정기관 중 일반행정기관 청렴도 순위 7위에 오른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지난해 20위에서 무려 13계단을 뛰어올라 중앙행정기관 전체에서 가장 청렴도가 개선된 기관으로 꼽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히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가 분야에서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4위로 올라 종합청렴도보다도 순위가 높았다.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 점수

구분	수사단속규제기관	수사단속규제기관
1등급	(8.40 이상)	법제처 (8.61) 여성가족부 (8.57)
2등급	병무청 (8.36) 금융위원회 (8.02) 환경부 (8.02) 국토해양부 (7.91) 공정거래위원회 (7.91) 농림수산식품부 (7.90)	소방방재청 (8.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36) 통일부 (8.24) 통계청 (8.19) 문화체육관광부 (8.15)
3등급	방송통신위원회 (7.83) 관세청 (7.77) 식품의약품안전청 (7.75) 해양경찰청 (7.56) 고용노동부 (7.49)	농촌진흥청 (8.1) 조달청 (8.07) 기상청 (8.06) 보건복지부 (8.04) 방위사업청 (7.94) 지식경제부 (7.94) 기획재정부 (7.92) 행정안전부 (7.91) 교육과학기술부 (7.89) 국가보훈처 (7.87) 국무총리실 (7.87)
4등급	국세청 (7.02)	특허청 (7.83) 국방부 (7.83) 중소기업청 (7.80) 외교통상부 (7.78) 문화재청 (7.74) 산림청 (7.69)
5등급	검찰청 (6.81점) 경찰청 (6.36점)	법무부 (7.13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전광역시가, 시·군·구에서는 경기 군포시, 충북 증평군, 서울 영등포구가 각각 최고점수 기관이며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고점수 기관으로 조사됐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남부발전(공기업 부문), 축산물품질평가원(준정부 부문), 한국수출입은행(금융공직유관단체 부문), 부산환경공단(지방공사공단 부문), 한국교직원공제회(기타 공직유관단체 부문)가 기관 유형별 최고점수 기관으로 조사됐다.

부패경험률은 교육청 정책고객이 1위

한편 부패경험과 관련해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자는 민원인 중 1퍼센트로 2011년(0.8퍼센트)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민원인의 제공액은 ▲금품과 향응 모두 6만~15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각각 20.1퍼센트, 29.3퍼센트)을 차지했으며 ▲제공빈도는 금품 1회, 향응은 2회(각각 29.5퍼센트, 25퍼센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천만원 이상의 고액제공은 전체 제공자의 2퍼센트(27명)에 해당했다.

제공이유는 관행상·인사차(44.6퍼센트), 신속한 업무처리(27.1퍼센트) 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패경험률에 있어서는 교육청 정책고객 중 학부모의 금품·향응·편의 제공에 대한 직·간접 경험률이 28.5퍼센트에 달해 최고의 부패경험률을 기록했다.

교육청의 업무 중에서는 운동부 운영(6.67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부 운영의 경우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이 6.6퍼센트로, 공공기관 평균 제공률(1퍼센트)을 훨씬 웃돌았다. G

글·박경아 기자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과장

"측정모형 바꿔 정책고객까지 평가자 확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의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예방을 위해 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양종삼 청렴조사평가과장은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있어 예년과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기관의 규모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격년 측정' 제도를 처음 적용했습니다. 연구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연구원, 의료기관 등 매년 측정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에 대해 청렴도 측정을 격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측정면제 기관도 확대했습니다. 반면 올해에는 국민들의 부패인식 개선도가 더딘 교육 분야에 대해 중점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국공립대학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최초로 실시됐습니다.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평가시행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측정모형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평가자를 기존 공공기관의 민원인과 소속직원뿐 아니라 해당기관 관련 학회, 출입기자, 국회 보좌관, 산하기관, 직능단체 관계자 등의 정책고객까지 확대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평가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학부모도 정책고객으로서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국민체감도와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실제 부패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평가자에 호의적 평가를 유도하는 등 신뢰도 저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했습니다.

은관문화훈장 받은 '스크린의 신사' 윤일봉씨

"영화현장 '레디고' 여전히 듣고 싶다"

강한 카리스마로 1950~70년대를 풍미하며 한국 남성상을 대변했던 영화배우 윤일봉(78)씨. 1948년부터 현재까지 총 1백20여 편에 출연하며 오랜 시간 대중들에게 변함없는 '스크린의 신사'로 남아있는 그가 올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원로배우 윤일봉씨는 "영화는 내 삶의 전부이고 인생의 스승"이라며 "지금도 영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뛴다"고 말했다.

원로배우 윤일봉씨는 1948년 데뷔한 이래 다양한 장르의 한국영화에 출연하며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한국영화계의 산 증인이다. 그는 신영균, 남궁원과 1950~70년대 한국영화 발전을 이끈 3대 배우로 꼽히며 한국영화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1967년 영화 〈애하〉로 제6회 대종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으며 1972년과 1977년에도 영화 〈석화촌〉과 〈초분〉으로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1984년에는 영화 〈가고파〉로 대종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영화계에 이름을 남겼고 2008년엔 제16회 이천 춘사대상영화제에서 '아름다운 영화인상'을 받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윤일봉씨의 큰 풍채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아있는 눈빛과 표정은 보는 사람을 압도했다. 한국영화사(史)를 대변하는 거장답게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영화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털어놓았다.

1948년 중학생 시절 〈푸른 언덕〉으로 데뷔

"당시 먹고살기 참 힘들었어요. 영화를 제작하는 게 사치라고 여겨지던 시절이죠. 부모형제마저도 영화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때였어요. 우리나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지금까지 영화인생을 살아오는 데 큰 힘이 됐죠."

그가 영화계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1948년 철도 다큐영화에 참여하면서부터다. 당시 중학생이던 윤씨는 어느 날 학교로 찾아온 안철영 감독과 이용민 감독 등에게 캐스팅돼 영화에 출연했으며 같은 해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영화'라는 타이틀을 달고 제작된 〈푸른 언덕〉에 출연, 스크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

그 이후 윤씨는 본격적으로 연기를 하기 위해 방송과 영화를 넘나들며 바쁘게 지냈다.

"지금은 어딜 가서든 연기를 배울 수 있지만 그 당시 연기학원이나 연극영화과 자체가 없었잖아요. 연기의 폭을 넓히기 위해 방송생활도 했었죠. 당시에는 라디오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던 시기였어요. 라디오 드라마에서 배역을 맡아 목소리로 연기하며 배우생활을 차근차근 시작했죠."

그는 만 19세가 되던 해인 1953년, 전쟁의 참화를 딛고 만들어진 정창화 감독의 데뷔작 〈최후의 유혹〉에 출연했다. 그는 "전쟁통에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었으나 스태프들 모두 힘을 모아 영화를 만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후 1955년 윤씨는 민경식 감독의 〈구원의 애정〉이라는 영화를 통해 극영화 첫 주연을 맡게 됐다. 그는 "6·25 전쟁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우리 민족의 이야기"라며 "현재를 살아가는 후배들이 시대의 아픔을 그려낸 영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큰 울림 줬던 〈가고파〉가 제일 기억에 남아"

그는 1957년 우리나라 최초로 홍콩과 합작영화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한류' 진출을 시도했다.

"당시 아시아 굴지의 영화사인 홍콩 쇼브러더스와 합작영화인 〈이국정원〉에 참여했어요. 그때 배우 김진규, 최무룡 등과 함께 열연했지요. 〈겨울연가〉 등 한국 드라마로 지금의 한류 열풍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한류진출 노력은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한국영화에 대해 아무도 관심없던 시절,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나서서 해외에 우리나라 영화를 알렸죠."

"당시의 30만~40만은 지금의 7백만~8백만 관객 동원 수와 맞먹거든요. 1977년 명보극장에서 개봉한 〈내가 버린 여자〉는 40여만 관객이 봤지요. 79년 〈내가 버린 남자〉도 28만 가까이 들었고요. 1980년 변장호 감독의 〈미워도 다시 한번 80〉으로 또 한번 크게 흥행몰이를 했어요. 당시 꽤 많은 인기를 얻었지요."

60년간 연기생활을 하면서 애착이 가는 영화를 말해 달라고 하자, 대종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가고파〉라는 작품을 꼽았다.

"당시에는 영화제작 편수가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지금처럼 내 입맛에 맞는 작품을 고를 처지가 못됐어요. 서로 돕는 의미로 영화에 출연했었죠. 힘든 시절 다함께 동고동락하며 참여한 작품이라 한편 한편 애착이 가요. 굳이 한편을 꼽으라면 힘든 우리 시대상을 잘 반영한 〈가고파〉라는 영화를 꼽고 싶네요. 상을 받아서 기억에 남는다기 보다 영화에 담긴 메시지가 큰 울림을 주거든요. 힘들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작품에 잘 담았어요. 정영숙, 박근형, 황정순 등 함께 열연한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고요."

윤씨는 지난 11월 19일 2012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대중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1972년 〈석화촌〉으로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일봉씨. 사진 왼쪽은 〈늑대와 고양이들〉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안인숙씨.

"이번에 은관문화훈장이란 큰 상을 주셔서 받게 됐는데, 어려운 시절 함께 고생했던 선배들을 대신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영화계 선배들이 다같이 고생하면서 일궈낸 한국영화를 앞으로도 후배들이 잘 이끌어줬음 하는 바람이죠."

지금까지 한국영화계의 거물이자 큰어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윤씨는 영화는 여전히 꿈이자 삶의 원동력이라며 화답했다.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보니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들이 무궁무진하다"고 답했다.

"영화인의 긍지·책임감 가진 후배 많아져야"

"영화현장에서 들려오는 '레디 고'를 듣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영화현장의 소리는 언제나 두근거리죠. 카메라 앞에 서서 표현한다는 일이 얼마나 멋져요.(웃음) 영화는 제 삶의 전부이며 인생의 스승과 같은 존재예요. 영화를 통해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왔고 배우로서 살아온 세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는 한국영화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후배들을 향한 애정어린 조언을 잊지 않았다.

"최근엔 코디와 매니저도 있고 영화 스태프들도 많아져 제작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1950~60년 당시 누가 배우 스케줄을 관리해 줬겠어요. 현장에서 더위, 추위와 싸우던 시기였죠. 지금과 같은 환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선배들이 땀흘려 고생한 노력이 초석이 됐다고 봐야겠죠. 영화인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말 한마디에도 조심할 줄 아는 후배들이 많아져 한국영화의 미래를 밝게 빛내 줬음 해요." G

글·공감코리아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받은 최연소 해녀 김재연씨

“너무 늦게 해녀가 돼서 아쉬워요”

자연이 허락하는 만큼 바다 밑에 머물렀다가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을 만큼의 선물을 채취해 뭍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해녀’. 지난 11월 28일 올해의 여성문화인으로 선정된 김재연씨는 해녀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최연소 해녀다.

조선DB

제주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고향인 마라도로 돌아와 해녀가 된 김재연씨는 “해녀가 된 후 나 자신을 좀 더 소중히 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단어는 있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는 이미 사라진 말들이 있다. ‘제주 해녀’도 그런 운명에 처한 단어다. 1965년 제주에는 2만3천81명의 해녀가 살고 있었다. 제주 전체 여성인구의 21.2퍼센트가 해녀였던 셈이다. 올해 현재는 4천9백95명의 제주 해녀가 살고 있다. 제주 여성인구의 2.1퍼센트다. 그 중 절대다수(97.5퍼센트)가 50세 이상이다.

제주의 최연소 해녀 김재연(36)씨에게 세상이 호기심을 갖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일 것이다.

마라도에서 나고 자란 김씨는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제주시에서 유학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결혼 후 가정주부로 있던 2007년, 마라도를 다시 찾았다가 삼십대 초반의 나이에 해녀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우연한 계기였다. 해녀들이 따온 수산물을 관광객에게 조금씩 팔다가, ‘내가 직접 따다가 팔면 어떨까’ 싶어 그 길로 바다로 나갔다. 두 아이의 엄마로 한 달에 절반가량은 물질을 위해 가족과 헤어져 살고 있다. 아이들은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두 아이의 엄마로 30대 초반에 뛰어들어

이후 김씨의 삶은 많이 바뀌었다. 제주도에서 열린 각종 토론회에 해녀 대표로 참가하기도 하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제주 해녀’는 올해 제주도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의제로 채택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자연을 보존하는 작업 방식을 오래전부터 전통으로 체화해 온 해녀들은 ‘자연력 회복’, ‘자연보존’이라는 시각에서 당시 WCC 관계자들에게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11월 28일에는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중 ‘신진여성문화인상’을 수상했다. 제주도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로서의 해녀를 국내외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덕이다. 여성문화인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가 주최해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마라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김씨를 만났다. 김씨에게 해녀라는 직업은 조금은 낡았지만 자신에게 참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더없이 편한 옷인 듯했다. 김씨의 어머니도 해녀였다. 1958년생인 고모는 김씨의 ‘직속 선배’인 현직 마라도 해녀다. 김씨는 “너무 늦게 해녀가 돼서 아쉽다”고 했다.

조선DB

김재연씨는 한 달에 절반가량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물질을 하고 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잖아요. 직장에 다니면 몸은 별로 안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지요. 일이 끝나도 늘 고민이나 긴장이 이어지고… 해녀 일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아침 8시에 바다에 들어가 오후 1시쯤 뭍으로 나오는데, 그러고 나면 몸은 정말 힘들지만 마음이 참 편해요. 생활에서 잡념이 없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해녀가 된 후 마음이 많이 건강해졌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어릴 때 해녀가 됐다면 체력이 좀 더 받쳐줬을 텐데 싶어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태풍 탓인지 바다 밑 해산물이 줄어 걱정”

‘해녀 일을 배우는 게 어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처음에 잠수할 때 좀 두려웠지만 그 뒤로는 괜찮았다”고 했다.

“마라도에 해녀가 6~7명이 계세요. 그보다 더 적게 바다에 나가실 때도 있고요. 항상 같이 바다로 나가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시지만 직접 (해산물을) 잡아주시진 않으세요. 같이 다니면서 스스로 배우는 거죠. 바다에 한번 들어가면 1분 정도 머물러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바닥에서 큰 전복을 봤거나 할 때가 있어요. 올라온 뒤에 다시 내려가면 그 전복을 다시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다른 해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같이 찾아주세요. 일종의 관행 같은 거예요.”

고막이 상하는 등 ‘직업병’도 있다고 한다.

“물이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고막이 상해요. 그래서 해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알아요. 보통 목소리로 얘기하면 잘 안 들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김씨는 “해산물 채취량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게 걱정”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는 태풍 탓인지 바다 밑에 해산물이 많이 줄었어요. 기후도 점점 달라지고 있고요. 전에는 한번 바다 밑에 들어가면 바구니를 가득 채워 나왔다던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무리해서 욕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해녀들의 말로 ‘물숨을 쉰다’라는 게 있어요. 바다 밑에서 지나치게 오래 있으면 올라올 때 쓸 숨까지 다 써버려서 물속에서 숨을 쉬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물안경과 얼굴이 너무 밀착돼 그 자리에서 바로 숨지기도 합니다.”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면 어떠냐’고 묻자 김씨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해녀가 산소통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스쿠버 다이버지 더 이상 해녀가 아니라는 것.

“해녀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직업”

“해녀라는 직업은 자연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자연이 허락하는 만큼만 바닷속에 머물고,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만큼만 수산물을 캐오죠.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 수산자원의 씨를 말려버리면 후대에 남겨줄 게 없잖아요.”

김씨는 “제가 상군해녀(동네에서 가장 물질을 잘하는 해녀)가 되면 누가 함께 바다에 들어갈지 우려된다”며 “저보다 바로 위 연령이 1958년생인 우리 고모일 정도”라고 했다.

“젊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고, 얼마나 할 게 없으면 해녀 일을 하는가 하는 사회적인 편견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해녀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지원해 주면 해녀들이 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G

글·하주희 기자

글로벌이미지케어(GIC)는 아이티와 미얀마,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의료 봉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아이티를 방문한 GIC 회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아픈 아이들 무료 치료하는 봉사재단 GIC

몸과 마음의 상처 고쳐주는 '인술 드림팀'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병이 없고 상처 없는 완전한 자신의 형상을 품고 있는지 모른다. 외과의사들이 모여 만든 의료봉사단체 '글로벌 이미지 케어(Global Image Care)'는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아이티에서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난 2010년 1월 12일은 고려대학교 이식혈관외과 박관태 교수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그날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에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고 여진은 계속됐다. 사망한 사람이 20만명이 넘었다. 박 교수는 지진이 일어난 지 사흘뒤 의료팀과 함께 아이티로 갔다. 시체와 부상자가 곳곳에 누워 있고 여진이 계속되는 아이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박 교수는 회상했다.

박 교수가 소속되어 있던 국제 의료봉사팀은 다국적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박 교수는 체계적인 의료봉사의 필요성과 한국인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고 한다. 박 교수는 반드시 아이티로 돌아와 의료봉사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박 교수와 같은 뜻을 품은 의사들이 모인 의료봉사 단체가 바로 '글로벌 이미지 케어(GIC)'다.

GIC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과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다. 강동경희대학교 산부인과 허주엽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일반외과를 비롯해 성형외과(안면기형 중 구순구개열 수술, 화상 후 구축 수술 등), 일반외과(일반 탈장, 맹장, 담낭제거술, 다양한 부위의 종양 제거), 산부인과(부인과 복강경 수술), 신경외과(두개골결손 재건술, 척추디스크, 퇴행성척추질환 수술 등) 및 마취과(전신마취 및 수면마취, 수술 후 처치) 등의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언청이' 환자 수술

2010년에 설립된 이후 베트남, 몽골, 마다가스카르 등 여러 나라에서 의료봉사를 해 왔다. 의료봉사 외에도 질병·빈곤·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한 구호 및 지속개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구호와 개발 사업, 지구촌의 기형이나 질병·빈곤·재난 현황 조사와 사업개발 및 문화교류 사업,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사회교육 사업, 회원교육과 복리증진 사업 등이 그것이다.

GIC는 여러가지 외과진료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힘을 쏟고 있는 분야는 바로 '구순구개열' 수술이다. 미얀마를 거점으로 삼아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흔히 '언청이'라고 불리는 구순구개열 수술은 흔하게 발생하는 선천성 기형이다. 임신 4~7주 중에 입술이나 입천장의 조직이 적절히 붙지 못하거나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동남아시아 등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흔한 기형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외관상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코, 치아, 잇몸, 위턱 등의 성장에 영향을 미쳐 얼굴 전체를 비정상적으로 만든다.

수술은 어렵지 않다. 입술이 벌어진 구순열의 경우 벌어진 부위를 봉합하고 입술근육을 제자리로 옮겨놓으면 된다. 입천장이 벌어진 구개열의 경우 주위 점막을 적절히 분리해 재건한다.

내달 아이티 심장병 어린이 10명 한국서 수술

우리나라에서는 구순열의 경우 생후 3개월, 구개열의 경우 12개월 정도면 수술을 통해 성장 지연과 언어발달 지연을 최소화한다. 하지만 미얀마의 경우 33세 성인도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여전히 많은 구순구개열 환자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미얀마 양곤을 찾은 GIC 회원들은 27명의 구순구개열 환자를 수술했다. GIC는 미얀마의 구순구개열 환자 치료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Cleft(구순구개열) in 미얀마'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매년 2백명씩 5년간 최소 1천명을 수술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뿐 아니다. 단순히 환자를 수술하는 것을 넘어 미얀마의 의료진이 구순구개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미얀마 의료진에게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달 말부터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연수가 진행된다.

GIC가 미얀마 외에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아이티다. 지진이 일어난 지 1주년이 된 지난 2011년 1월 아이티를 찾은 GIC 회원들은 두 가지에 놀랐다고 한다. 지진 직후 많은 한국 의료팀이 아이티를 찾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엔 아무도 가지 않아 놀랐고, 지진 직후보다 아이티의 현지 상황이 훨씬 안좋아 있다는 데 놀랐다고 한다.

GIC 회원들은 아이티 전역에 있는 고아들을 비롯한 아이들에게 주목했다. 이들 중에 특히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많다고 한다. 심장병 수술은 고난도의 수술이다. GIC에서는 아이티의 현재 의료 수준으로는 그 아이들을 고쳐 주기 힘들다고 판단해 한 해 스무 명씩 고쳐 주기로 했다.

일단 올 12월에 10명의 아이티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한 명당 드는 수술비용은 1천만원 가량이다.

수술비용을 모금하기 위한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성악가 신영옥과 함께하는 아이티 돕기 음악회가 12월에 열릴 예정이고 12월 22일에는 리쌍, 백지영, 윤도현, 아이비, 박완규, 임형주 등이 참여하는 기금모금 콘서트가 열린다. Ⓖ

글·하주희 기자

박관태 고려대 이식혈관외과 교수

"미얀마 양곤에 현지 지부 개설 예정"

하주희 기자

박관태 교수는 몽골어에 능통하다. 2001년부터 4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으로 몽골에서 근무한 덕이다. 몽골에 있을 때는 복강경 수술을 몽골 병원에 전파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해외의료봉사라는 사명을 한시도 잊지 못했다고 한다. 내년에 다시 몽골의 병원으로 파견 나갈 예정이다.

단체 이름이 독특한데 무슨 뜻인지요.

이미지(image)라는 것은 사람이 타고난 형상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이미지 케어라는 이름에는 형상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엔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의 회복도 포함되겠지요.

구순구개열에 주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순구개열은 사실 그렇게 고치기 힘든 기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치지 않으면 평생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가야 하는 기형이지요. 내과에 비하면 외과가 의료봉사에 더 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외과진료나 외과수술은 그렇지 않잖아요.

GIC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미얀마 양곤에 현지 지부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좀 더 지속적인 의료봉사가 가능하겠지요. 아이티에서는 더 많은 심장병 환자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병원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난관도 있었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잘 헤쳐 나갔으니 앞으로도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 백남선 박사가 말하는 국제기구 경험

"글로벌 어젠다 이끌 리더십 계속돼야죠"

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적극적인 국제기구 유치 전략을 펴나가고 있다. 대형 국제기구 유치는 국가 브랜드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 ·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에서 근무 중인 백남선 박사를 만나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보람과 국제기구 유치 확대를 위한 생각을 들어봤다.

지난해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오지마을 어린이들과 함께한 백남선 박사는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IVI가 개발한 백신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뇌척수막염, 폐렴, 일본뇌염, 뎅기열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매년 5세 미만 어린이 6백만명이 전염병에 희생되고 있다. 어린 생명들이 헛되이 희생되는 걸 막기 위해 오지를 제집처럼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 바로 백남선(52) 국제백신연구소(IVI) 박사다. 백 박사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가에 백신을 보급해 전염성 질환에 노출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으로 1997년 10월에 비영리국제기구로 출범한 IVI는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이자 개발도상국 어린이 전염병 예방백신 개발을 위한 세계 유일의 국제기구다.

IVI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백신이 가장 필요한 국가들에 백신을 보급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새로운 백신의 발굴에서부터 백신의 임상개발, 도입 대상지역에서의 현장적용을 위한 백신 평가에 이르기까지 백신연구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다.

월드비전 등서 일한 국제보건 분야 베테랑

백 박사는 현장에 파견돼 현지 및 국제 보건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IVI의 연구실에서 개발한 백신의 보급과 현장 연구를 진행하는 등 많은 일을 맡고 있다. 월드비전을 거쳐 현재 IVI에서 일하고 있는 백남선 박사는 10여 년간 국제 보건 분야에서 일해 온 베테랑이다.

2001~2005년까지 키르기스스탄 미국 NGO, the Scientific Technology and Language Institute에서 보건 부문 책임자(health Section Head), 2007~2010년까지 월드비전 한국에서 국제구호팀장, 월드비전 인터내셔널에서 국제재난구호팀원으로 근무한 그는 지난해 8월부터 IVI에서 근무 중이다.

1994~2001년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소아과 교수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그가 선뜻 국제구호 현장으로 나간 이유는 왜일까.

"아프리카는 물과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요. 모든 부분에서 열악하죠. 그런 여건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백신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근데 이 백신을 살 수 있는 돈이 그들에겐 없어요. IVI는 개도국이 백신을 싸게 살 수 있도록 저렴한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좋은 의사들이 많지만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는 의사 한명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제구호 현장으로 가게 된 것이고요."

백 박사는 지난해 아프리카 북서부의 내륙국가 니제르를 방문했다. 풍토병과 납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니제르에서 그가 할 일은 뇌척수막염 백신을 니제르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접종하면서 새로운 백신이 효과적으로 잘 보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접종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헌신적인 활동으로 그는 니제르 활동을 순조롭게 마치고 현재는 에티오피아에서 IVI가 개발한 콜레라 백신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자국 이익만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대 지나"

그는 최근 유치된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국제기구인 GCF와 IVI 모두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전 세계가 함께 공조하며 잘살기 위한 마인드가 절실한 때예요. GCF 유치도 그런 차원에서 크게 생각해야 해요.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이라는 국제적 이슈이자 글로벌 어젠다를 이끌고 나아가기 위해서 선진국과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개도국에 재원, 기술 등을 지원해 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도 중요해요."

백 박사는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한국인들이 앞으로 국제사회를 리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도 한국에서 공부할 당시에는 국제적인 사고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국제구호 현장에 나가 많은 외국인과 협업하며 배운 점이 많아요. 하다못해 같은 서양인이라 하더라도 프랑스인의 사고, 폴란드인의 사고, 네덜란드인의 사고가 모두 달랐거든요. 그들과 함께 일하며 문화적 차이에 대해 많이 느끼고 배웠죠. 지금은 그 경험을 토대로 일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는 동서양의 사고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전 세계의 공조와 협력을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50~60년대 보릿고개를 지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을 모두 겪은 한국인은 개도국의 상황도, 선진국들의 글로벌 마인드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남선(왼쪽) 박사가 IVI 연구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한국인은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도 서구의 마인드도 이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동서양의 조화를 잘 지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그는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이 크다며, GCF 유치 등 높아진 국격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기 위해선 젊은 세대들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젊은 세대가 국제적 마인드로 미래 이끌어야"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할 때 언어적인 부분을 떠나 항상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때 갈등을 원활하게 풀어가는 요소 중 하나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국제적인 마인드예요. 한국회사에서 한국사람들과 일할 때는 느끼지 못하는 점이죠. GCF 등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서면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모여들게 되고 현지인들과 협업하는 기회들이 열리게 되겠죠. 젊은 세대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분히 활용해 앞으로 국제사회를 리드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백 박사에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꼽아달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실력과 능력을 이미 인정받았어요. 최근 외교적 성과도 그렇고요. 이제는 전 세계의 기아, 환경 등 글로벌 공통 어젠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끌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것을 잘 살려 글로벌 어젠다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해요." G

글과 사진 · 공감코리아

아프리카에 밥이 아닌 농사기술 ‘선물’

한국농수산대학, ‘지구마을자립프로젝트’에 농업 분야 파트너로 참여

최근 아프리카에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을 전하려는 손길이 부쩍 늘고 있다. 새마을운동을 전하려는 정부·비정부기구(NGO)의 노력, 한국국제협력단(KOICA)·지자체들의 농업기술 전파 노력 등이 그것이다. 아프리카 농업 자립 지원사업에 우리의 농대나 농수산대학들도 속속 합류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한국농수산대학의 아프리카 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지난 8월 한국농수산대 교수들이 아프리카 말라위의 구물리라 마을의 농사현황을 살펴보고 왔다. 한농대는 해외원조단체인 열매나눔인터내셔널과 협약을 맺고 구물리라 마을에 교수를 파견해 현지에 꼭 필요한 농업 지식을 전할 예정이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배종하·이하 한농대)은 지난 11월 22일 열매나눔인터내셔널(대표이사 김동호)과 업무 협약을 체결, 앞으로 아프리카 말라위 농업혁신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원조단체인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은 한국을 비롯한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마을이 스스로 자립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지구마을자립프로젝트’로 이름 붙은 이 사업에 한농대는 농업 분야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한농대는 열매나눔인터내셔널에서 지원하고 있는 말라위 구물리라 마을에 교수를 파견해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전수하고, 마을이 가진 문제점과 전반적인 농업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한농대 교수팀, 말라위서 현지 조사 마쳐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말라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구물리라는 주요 소득원인 가축 사육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약 25퍼센트에 불과한 가난한 마을이다. 주민 대다수가 옥수수와 땅콩, 담배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업용수와 농기구가 부족하고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생산량이 턱없이 낮다.

이에 유엔에서는 ‘MVP(Millennium Villages Project)’로 선정해 마을의 빈곤 퇴치를 위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MVP란, 유엔이 2015년까지 세계 빈곤 문제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한 ‘새천년개발목표’의 하나로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

한농대와 협약을 맺은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은 국내 최초로 유엔의 MVP 사업 파트너로 선정되어 2011년부터 구물리라 마을을 돕고 있다.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이 추진하고 있는 지구마을자립프로젝트는 단편적인 구호방식을 넘어 한 마을을 대상으로 집중적,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맞춤형 자립개발사업이다.

자선이 아닌 ‘자립’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 빈곤지역에 지속가능한 사업모델(Business Model)을 접목하는 것이 특징. ‘빈곤을 넘어 자립으로’라는 신념으로 지역개발을 통한 빈곤지역의 소득창출, 나아가 빈곤의 종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은 이번 협약과 관련, “농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 한농대와의 협력이 전 세계 가난한 마을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무 협약에 앞서 한농대 강성구(과수학과), 강윤규(식량작물학과), 홍규현(채소학과) 교수 등 세 명은 지난 8월 구물리라 마을을 방문해 농사 현황과 작물 상태, 토양 산도 등을 점검했다.

강성구 교수는 “처음에 방문한 농장은 수도 근교에 있는, 그나마 가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도 시설이 우리나라 70년대 수준이었다”며 “구물리라 마을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기후와 토질은 농사를 짓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다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걸림돌이었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뉘어 있어 건기에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더군요. 구물리라 마을에서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당시 우리 한농대 교수팀과 동행한 관개수로 전문가가 현지를 둘러보고 소규모 댐과 저수지, 우물 등 실현 가능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 쪽에서도 생산량 증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강 교수는 또 “토양이 건강한 데는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이 현지에서 추진한 유기농 퇴비 사업이 한몫했다”며 “앞으로 꾸준히 사용량을 늘리라고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해외 원조기관들이 구물리라 마을에 값비싼 화학비료를 지원한 것과 달리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은 사람의 인분을 활용한 전통 방식, 잡초와 흙을 혼합해 발효하는 방식 등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들을 활용해 퇴비를 제조하는 방법 등을 전수했다. 화학비료를 사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이 늘지만, 비료 지원이 끊기면 곧바로 원래의 생산량으로 돌아가기 때문.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립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한국농수산대학 배종하 총장(오른쪽)과 열매나눔인터내셔널 김범석 사무총장이 말라위 농업혁신 프로젝트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학생 봉사단도 파견해 지속적 지원키로

이번 협약에 따라 한농대는 앞으로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이 진행하고 있는 구물리라 마을자립프로젝트에 농업 분야 파트너로 참여,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열매나눔인터내셔널도 한농대 구성원이 현장에서 원활한 연구 및 실습, 학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한농대는 매년 방학 기간에 추진하고 있는 해외 농어촌 봉사활동 지역에 최근 구물리라 마을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네팔 치트완군에 있는 피플레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는 한농대는 ‘구물리라 마을에도 학생들을 파견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농대 배종하 총장은 “농업을 통한 빈곤 문제 퇴치에 농업 인재를 양성하는 한농대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지속해서 교수와 봉사단을 파견해 ‘따뜻한 심장’이라 불리는 말라위 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글·최선희 객원기자 / 사진·열매나눔재단

일러스트 · 신명호

“아버지의 눈물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고용노동부 ‘취업사관학교’ 졸업생들 수기 모아

학업을 포기하거나 가출을 감행한 청소년들에게는 따뜻한 보살핌과 함께 배움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개설한 취업사관학교 졸업생들의 감동수기 12편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취업사관학교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올라 있는 이들 수기에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딛고 희망 찬 발걸음을 내딛는 청소년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

대상 | 김성진 군 ‘아버지의 눈물’

“이젠 제가 아버지께 꿈자랑을 할 겁니다”

“꿈을 가져본 적 없던 저에게 세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다. 둘째는 취직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눈물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가정형편을 비관해 가출 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절도에까지 손을 댄 김성진(17) 군. 소년원에 면회 온 아버지의 눈물에도 얼음처럼 차가웠던 그의 마음에 한 가닥 따뜻한 기운이 스민 것은 취업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부터였다.

보호감찰 2년 처분을 받고 소년원을 나온 성진 군에게 보호감찰관은 용접기술을 배워보라며 전남 광양의 HRD취업사관학교 입학을 권했다. 앞날이 막막했던 성진 군은 광양으로 향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가출생활에 물들었던 성진 군에게 한적한 시골마을과 용접기 불꽃에서 뿜어내는 섭씨 3천도의 열기는 견디기 힘든 고역이었다. 그러나 친아버지처럼 챙겨주는 담임 선생님과 자원 봉사자들의 보살핌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용접에 재능 있다”는 선생님의 칭찬은 꾸중만 듣고 자란 성진 군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단비가 됐다. 이제는 스스로 대견해할 만큼 용접작업에도 능숙해졌다. 성진 군은 “철판 접합 부분에 길게 이어진 용접자국을 보면 이제부터 나도 앞만 보며 달려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생긴다”고 수기에 적었다. 성진 군의 수기는 11월 16일 서울 한국잡월드 나래울 극장에서 시상식을 가진 취업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동안 받은 수당을 모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못난 아들이 꿈 자랑을 할 겁니다.”

금상 | 한소윤 양 ‘처음으로 꿈이 생겼어요’

“두 살 때 헤어진 엄마도 만나고 너무 좋아요”

공모전 금상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조손가정에서 지적장애인 언니와 함께 자란 한소윤(15) 양의 수기 ‘처음으로 꿈이 생겼어요’가 수상했다.

소윤 양은 가출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 자살한 아빠에 대한 원망으로 외로움을 많이 탔고, 학교 진학 이후에는 공부에 흥미를 잃고 가출을 밥 먹듯 했다. 할머니는 이러한 손녀딸을 심하게 매질했고, 소윤 양은 맞는 것이 싫어 다시 가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그러나 학교 사회복지사의 소개로 소윤 양이 춘천의 취업사관학교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출구가 없을 것 같았던 소윤 양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평소 관심을 가졌던 피부미용을 공부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취업사관학교에서 성실하게 출석하는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교육 장려금도 적지 않은 보탬이 됐다. 중학교 졸업장도 취득했다.

“아침에 늦잠 자고 있으면 기숙사 선생님이 엄마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깨워주셔서 수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은 공부가 뒤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 토·일요일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가르쳐주셨어요.”

현재 네일아트 자격증, 메이크업 자격증을 취득한 소윤 양은 아직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 남았지만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는 희망에 공부가 즐겁다.

뜻밖의 경사도 있었다. 두 살 이후 연락이 끊겼던 엄마와 다시 연락이 된 것이다. 지난 10월 엄마가 취업사관학교로 찾아와 10여 년 만에 상봉의 기쁨을 누렸다.

“만약 취업사관학교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도 저를 찾지 못하고 이산가족으로 살았겠죠.” G

글·남창희 객원기자

전국 4곳 취업사관학교

헌신적 보살핌으로 마음속 응어리도 녹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 해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중퇴자는 7만2천명,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은 9만8천명이다. 학업중단·가출 청소년은 교육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절도나 폭행, 성매매 같은 범죄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들에게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직업훈련 외에도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받은 상처에 대한 상담치료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직업훈련 과정과는 차별화된 특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마련된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과정을 포함하는 청년고용종합대책’에 근거해 2011년 초 전국 직업교육시설 가운데 3곳을 취업사관학교 운영기관으로 선발·지정했다. 지난 1기 졸업생은 57명. 올해에는 1곳을 추가지정해 모두 4곳에서 총 1백30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취업사관학교는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3~4월부터 12월까지 직업훈련을 무료로 실시한다.

현재 수도권(서울)·강원(춘천)·경남(김해)·전남(광양)에 각각 기계가공, 특수용접, 커피바리스타, 피부미용의 4개 과정이 개설됐으며, 기숙시설을 제공하고 심리치료·인성교육·봉사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같은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또한 교육생에게는 교육 참여도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교육과정에 학교 교과과정은 포함돼 있지 않으나, 교육생이 개별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면 일선 교사들이 일과시간 외에 개별적으로 도와주기도 한다.

사업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성기 능력개발이사는 “취업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사례에서 학업을 중단한 위기 청소년이 직업교육과 인성교육을 동시에 받으면서 순화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며 향후 위탁기관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취업사관학교 지정기관

지역별	기관 및 문의전화	훈련과정	모집인원
서울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02-828-3600	기계가공	50명(남자)
전남	광양만 HRD센터 ☎061-772-7114	특수용접	30명(남자)
경남	김해YMCA ☎055-328-3300	커피바리스타	25명(여자)
강원	춘천YMCA ☎033-255-1001	피부미용	25명(여자)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 ☎02-3271-9364

"국내도 글로벌 스포츠기업 나올 수 있다"

스포츠 산업 비전 제시 포럼… 프로스포츠 관객 늘어 성장 잠재력 커

지난 11월 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 산업 비전 제시 포럼'이 개최됐다. 스포츠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세계 스포츠 시장의 주역으로 발돋움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자타공인 스포츠 강국이다.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F1 등 세계 5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유치한 나라다. 지난 런던올림픽에서는 종합 5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은 스포츠 강국의 명성에 미치지 못한다. 변변한 글로벌 브랜드 하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프로스포츠 관객에서 볼 수 있듯이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문제는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전략과 정책이다.

지난 1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스포츠 산업 비전 제시 포럼'은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정성식 휠라코리아 부사장, 이희진 IB스포츠 사장, 강준호 서울대 교수, 조태룡 넥센히어로즈 단장이 주제 발표를 했고 김도균 경희대 교수,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진면 산업연구원 팀장, 김원동 전 강원FC 사장 등 학계와 업계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불황 없는 세계 스포츠 산업 성장성 풍부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이 기대수준에 이르지 못한다지만 그렇다고 정체돼 있는 것은 아니다. 정성식 휠라 부사장은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며 1999년 대비 약 5배 성장했다"며 "올해는 GDP의 2.2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5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 프로야구는 올 시즌 관중 7백만명을 돌파하면서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를 확고히 굳혔다. 프로야구 외에도 축구, 농구 등 관중 동원력이 있는 스포츠 종목이 많아 국내 스포츠 산업도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성장성도 풍부하다. 정 부사장은 의류 시장을 예로 들었다. 올해 전체 의류 시장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3.5퍼센트 성장에 머문 반면 스포츠 의류 시장은 11.5퍼센트나 성장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새로운 시장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먼저 워터스포츠, 레저스포츠, 힐링스포츠 등 새로운 종목이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시장은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다. 아웃도어 시장이 전통적 아웃도어와 프리미엄 아웃도어 시장 등으로 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증가와 함께 승마와 요트 등 프리미엄 시장도 성장하기 시작했다.

아시아 스포츠콘텐츠 시장 선점 필요

확장되고 있는 스포츠 시장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5가지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정 부사장은 제안했다.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원부자재 수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한 노동인력의 유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국내외 금융자본을 이용한 자본 흡수적 전략(M&A) ▲투자를 통한 자본의 선순환이 그것이다.

정 부사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브랜드, 파이낸싱(자본), 소싱(생산기지)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충분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휠라는 이탈리아의 작은 브랜드에 불과했지만 적극적인 인수합병과 글로벌 소싱을 통해 성장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13만5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스포츠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스포츠콘텐츠 산업은 스포츠를 소재로 한 콘텐츠 시장 전반을 가리킨다. TV와 라디오 등의 방송 중계 시장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TV와 라디오 등 전통 매체는 물론 인터넷, IPTV, DMB, 모바일 등 뉴미디어가 등장하며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스포츠콘텐츠 시장의 확대는 주요 스포츠 리그의 방송권 수입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2009년 5.2조원에서 2013년 10조원으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는 2006년 2.4조원에서 2014년 6조원으로 불어났다. 월드컵은 1996년 7백50억원에서 2010년 10조원으로 폭증했다.

이희진 IB스포츠 사장은 "글로벌 스포츠콘텐츠 시장은 자본과 거래의 대형화, 시장의 글로벌화(한 국가의 리그를 전 세계가 시청), 지배구조의 현지화(해외자본을 활용한 사업구조)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스포츠콘텐츠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후원하는 기업과 시청자, 팬이 선순환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진출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스포츠 산업 비전 제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제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어 이 사장은 "스포츠콘텐츠 시장은 기본적으로 톱리그가 전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인데 최근 들어 메이저리그가 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며 "선수와 구단, 연맹, 자본이 힘을 모아 스포츠한류를 만들어내 더 늦기 전에 아시아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급자 중심에서 시장지향적 관점으로 스포츠 산업을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준호 서울대 교수는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인 시각으로는 스포츠 산업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스포츠시장가치망'이라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안했다.

"자생력 있는 스포츠 시장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스포츠시장가치망에 따르면 스포츠 시장은 스포츠를 관람하고 직접 즐기는 등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본원시장'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파생시장'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전체 스포츠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원시장의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 프로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야 스포츠토토 같은 파생시장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파생시장으로 방송중계권, 스폰서십, 선수양성, 스포츠용품설비, 스포츠관광, 라이선싱 등 10개 시장을 예로 들었다.

강 교수는 "향후 정부의 스포츠산업육성정책은 스포츠시스템, 본원시장, 파생시장 간에 선순환 구조를 갖춘 지속가능하고 자생력 있는 스포츠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스포츠 본원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요 촉진과 공급자의 경영혁신, 민간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G

글·변형주 객원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해리포터처럼… 투명망토의 마법 눈앞에

한·미 교수팀 공동연구… 전파가 휘어 돌아가는 '스마트 메타물질' 개발

영화 〈해리포터〉를 보면 마법학교에 들어간 해리가 투명망토를 둘러쓰고 위기를 피하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투명망토의 현실화가 성큼 앞당겨졌다. 한국 과학자가 주도하는 국제 공동 연구팀이 투명망토를 만들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했다.

연세대 기계공학과 김경식 교수팀은 미국 듀크대 데이비드 스미스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로 전파가 반사되지 않고 휘어져 돌아가게 하는 '스마트 메타물질'을 개발했다.

스마트 메타물질의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 사람이 어떤 물체를 본다고 할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엄밀히 말해 그 물체가 아니라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는 빛이다. 스마트 메타물질로 만든 투명망토는 가리고자 하는 물체에 빛이 반사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뒤로 돌아가게 해서, 물체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투명망토의 가능성은 2006년 처음 제기됐다. 스미스 교수와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ICL)대의 존 펜드리 교수는 가시광선이 물체에 반사되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메타물질'을 처음 개발했다. 우리 눈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된 가시광선을 인식해 물체를 보기 때문에, 가시광선이 반사되지 않으면 해당 물체를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물질은 크기가 수 마이크로미터(㎛·1백만분의 1미터)에 불과했고, 망토가 접히거나 구겨지면 그 효과도 사라졌다.

실험에 쓰인 스마트 메타물질 투명망토. A는 변형 전의 투명망토이고 B는 변형 후의 투명망토를 나타낸다.

온라인 과학전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려

김 교수팀은 '메타물질'의 단점을 보완해 2백제곱센티미터 크기의 '스마트 메타물질'을 만들었다. 여기에 위성통신에 쓰이는 마이크로파를 쏘이면, 전파는 그대로 돌아 나간다. 빛이 물체에 닿지 않고 뒤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일정한 굴절률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투명망토는 숨기려는 물체에 맞춰 설계했기 때문에 일정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 접거나 변형하면 투명망토의 기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작게 만들려면 공정이 어렵고 매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김 교수팀이 개발한 '스마트 메타물질'은 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양이 바뀌면 굴절률도 자동으로 바뀐다. 공상과학 영화에서처럼 마음대로 변형시켜도 성질을 계속 유지하는 신축성 있는 투명망토를 개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세계 최초다.

김 교수팀은 "현재 만든 물질을 수십만분의 1 크기로 작게 만들면 가시광선에도 투명효과가 나타난다"며 "수년 내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투명망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의 온라인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11월 20일 자에 실렸고, 네이처 출판사가 'One size cloaks all(하나로 모든 것을 감싼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는 '주요 연구 성과'로 채택됐다. G

글·하주희 기자

"바다를 육지처럼"… 일본·제주 싸게 간다

코레일 겨울시즌 기차여행 '내일로 티켓' 페리와 연계

대학 졸업반인 류세인(24)씨는 취업준비를 하느라 지쳤던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 위해 이번 겨울 기차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류씨는 지난해 여름 코레일이 만든 '여름시즌 내일로(路) 티켓' 상품을 이용해 저렴하게 전국 각지를 여행했던 경험이 있다. 류씨는 "내일로 티켓은 여행비 부담을 덜어줘서 마음 편하게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발매된 '내일로 티켓'은 만 25세 이하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의 자유석과 입석을 7일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이다. '내일로 티켓'은 여름시즌에만 운영해 오다 2009년부터 겨울시즌에도 도입하기 시작했다.

올 겨울시즌 '내일로 티켓'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와 전국 주요 역에서 구매할 수 있다. 티켓 가격은 5만6천5백원이다. 또 코레일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저렴하게 오갈 수 있는 상품도 출시했다.

'내일로 티켓'을 이용하는 고객이 페리를 이용해 일본과 제주도로 여행을 할 경우 저렴하게 페리를 탈 수 있다. 부산에서 일본의 하카타항까지 고려훼리를 이용할 경우 왕복 7만~9만원만 내면 된다. '내일로 티켓' 이용자가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일본까지 이동할 때 전체 교통비가 15만원에 불과해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하려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이다. 이 밖에 목포에서 제주까지 가려는 고객은 씨월드훼리를 이용하면 35퍼센트 선박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5만원이면 서울서 일본 하카타까지 왕복 가능

'내일로 티켓'은 지난 한 해에만 17만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했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학생 박종근(21)씨는 지난해 겨울 친구들과 부산으로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KTX를 타고 부산에 빨리 갈 수도 있었지만, 좀 더 바깥풍경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내일로 티켓'을 이용했는데, 아침을 꼬박 새고 동틀 때쯤 부산 청사포를 지나게 됐어요.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확 다가왔던 게 기억이 나요. 기차에서 친구들과 아침을 함께 맞았던 추억은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2012 겨울시즌 내일로 티켓' 의 이용기간은 내년 3월 6일까지이며,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와 전국 주요역에서 판매된다.

박씨는 "'내일로 티켓'으로 일본을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다"며 "기회가 된다면 꼭 이용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내일로 티켓'을 구매한 여행자는 부산아쿠아리움 입장권(2만1천원)을 1만2천원에 할인받아 관람할 수도 있다.

코레일은 '내일로 티켓' 상품의 홍보를 위해 총 상금 2천만원 상당의 '내일로 공모전'도 연다. '내일로 티켓' 이용자를 대상으로 '내일로 엠블럼 디자인·노래·여행수기·여행 UCC 공모전'이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코레일은 각 부문별 최우수작 1명, 우수작 2명, 장려작 10명에게 총 2천만원의 상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차로 우리나라 한바퀴'에 접속해 이벤트 코너를 참고하면 된다.

코레일 여객본부 조형익 여행사업단장은 "'내일로 티켓'은 2007년에 발매된 이후 청소년을 위한 전국일주 기차여행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나아가 최저가 해외여행상품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정소안 인턴기자

기차로 우리나라 한바퀴 www.railstory.net

답십리역 1·2번 출구를 나오면 과거로 간다?

1 답십리역 1·2번 출구를 나와 고미술상가 건물로 들어서면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고가구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 집안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고미술상가에서 골동품을 구입하는 사람도 많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1·2번 출구로 나가면 고미술상가가 나온다. 발길을 옮길수록 생경한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상가 밖이며 복도에 불상, 탑, 고가구들이 마치 터줏대감처럼 앉아 있다. 고미술상가의 위치를 알려주는 낡은 표지판에는 'Sam Hee'라는 말이 쓰여 있다. 삼희는 아파트 이름이다. 고미술상가는 삼희아파트 2, 3, 5, 6동의 1층과 송화, 우송빌딩 1층에 자리해 있다. 80년대 판 주상복합 아파트인 셈이다.

공기의 흐름마저 고즈넉하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현재 1백50여 곳의 상가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원래 고미술상가는 중구 황학동과 서대문구 아현동 일대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에 비싼 자릿세와 교통난을 피해 이곳으로 옮겨왔다.

상가 안은 마치 박물관과도 같다. 도자기부터 서책, 자수 공예품까지 세월을 이겨낸 골동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유리창 안에 있지 않아 어쩐지 친근하게 느껴지는 조상의 유품들이다. 상가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천천히 골동품을 감상하는 젊은 엄마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외국인들도 자주 보였다. '입문' 단계를 지나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외국인들이 인사동 대신 답십리 고미술상가를 찾는다고 한다.

도자기부터 고가구까지 빼곡히 들어차

고미술상점 '가람'을 운영 중인 이상근씨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며 많은 것을 잃었다"고 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1970~80년대까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게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근대를 잃어버린 거죠. 예전 영화포스터나 소품 등 근대의 물건들이 눈에 띄면 사들여 놓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켜켜이 보존해 놓으면 그게 또 골동품이 되고 고미술이 되는 것이지요."

서울관광마케팅은 답십리 고미술상가를 도보관광투어 코스로 개발해 인근의 약령시장과 함께 손님 모시기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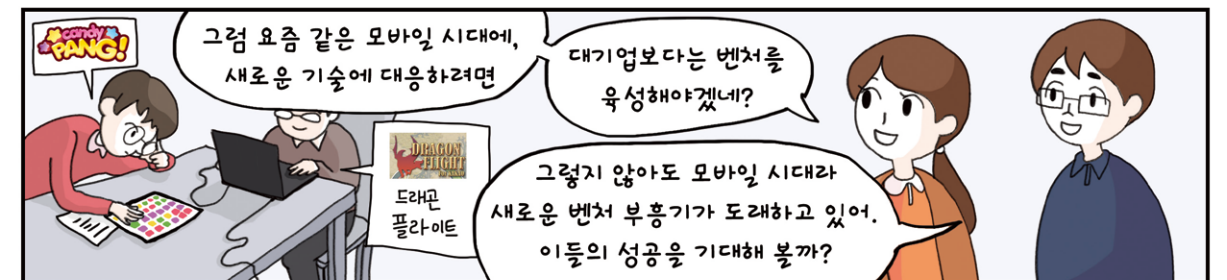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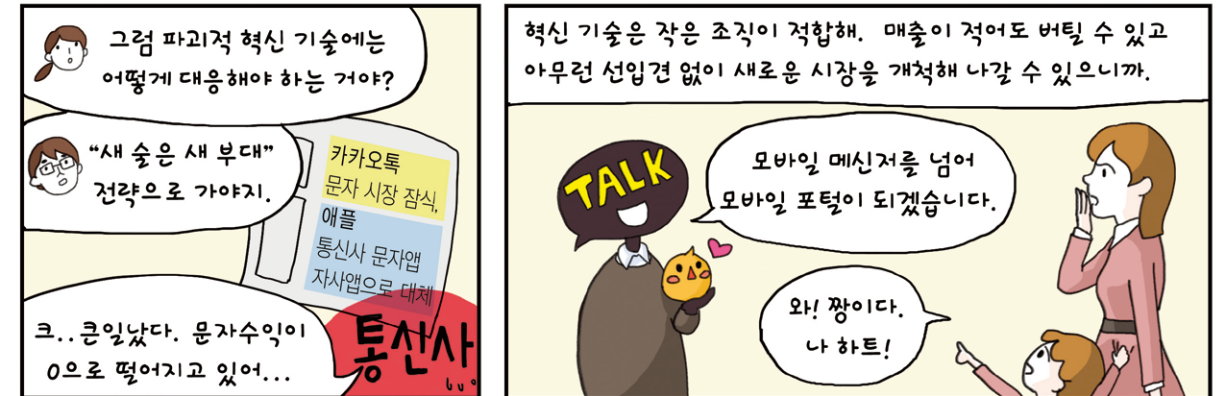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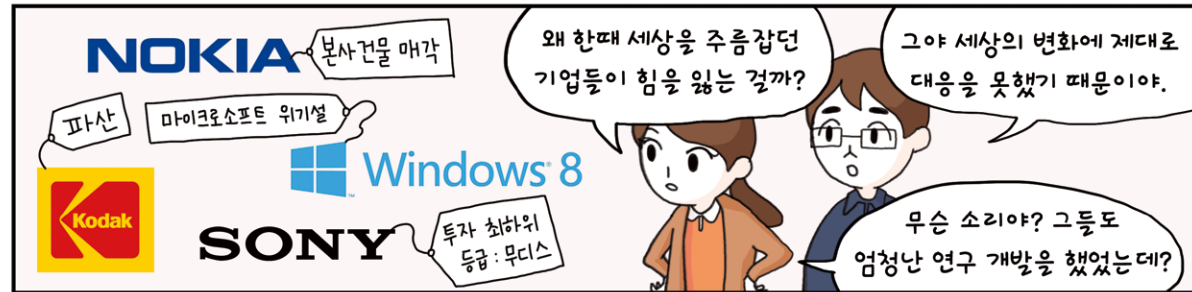
동대문구도 80년대 수준의 낡은 간판을 정비하고, 관광객용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했다. 사람들이 상가 위치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홈페이지도 만든다. 상인들도 상가 문화명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 사단법인 답십리고미술회가 출범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가 11월 7~13일까지 인사동에서 열렸다.

답십리 고미술상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을 연다. 아침 9시30분에 문을 열어 저녁 7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해가 짧은 동절기에는 저녁 6시가량이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다. 고미술상가의 상인들은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구경나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골동품의 매력에 눈을 뜬 아이들은 언젠가는 골동품, 고미술 애호가가 될 것이니 말이다. G

글·하주희 기자 / 사진·서경리 기자

자수를 놓은 베개는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만화로보는 IT오디세이

글·김인성 / 그림·김빛내리

앞으로 혁신기업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뛰어난 벤처들이 더 많이 출현하기를 바랍니다.

전주 겨울밤 꽁꽁 언 달 너! 허연 막걸리 잔과 닮았구나

해질 무렵 전북 전주 오목대에서 내려다본 한옥마을과 호남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전동성당. 고즈넉한 시간을 보낸 뒤 전주의 맛을 찾아 떠난다. 시간이 만들어낸 전통의 맛과 최근의 감각적 맛이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는 도시다. 세계인의 입맛이 돼버린 전주비빔밥을 시작으로 여행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콩나물국밥과 순댓국을 맛보고 달이 뜨면 막걸리상에 둘러앉아 청춘을 이야기한다. 다양한 안주거리도 일미다.

전주에서는 어느 막걸리집에서나 푸짐한 안주와 맛있는 전주식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전주 한옥과 맛집골목 기행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양사재에 짐을 풀었다. 이 도시에 오면 꼭 오래된 한옥 민박집에서 묵곤 한다. 버선코마냥 오뚝하고 날렵한 곡선을 가진 검은 기와지붕 아래 옛날식 따끈한 구들장이 있는 한옥집서 보내는 시간은 꽤나 운치 있다. 한옥마을에는 한옥생활체험관을 비롯해 승광재와 양사재, 학인당, 동락원, 소담원 등 10여 곳의 한옥 숙소가 있다. 한옥 숙소마다 다례 체험이나 판소리, 한지 만들기나 전통예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아이들과 함께라면 미리 알아보고 예약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한옥 체험 시설 중 양사재는 전주의 옛 향교의 부속 건물로 사용되던 아담하고 정갈한 한옥 민박집으로 한때 시인 이병기 선생이 머무르며 다작한 곳이기도 하다. 어른 둘 누울 만한 손바닥만 한 방에는 실상 별다른 시설이나 꾸밈이 없다. 청결함이 느껴지는 풀 먹인 이부자리 두 채와 벽에 걸린 옷걸이용 대나무 하나가 세간의 전부이다.

따뜻한 온돌방 숙면과 소박한 아침상

정원을 향한 앞문을 활짝 열어 놓으면 나른한 볕 내리쬐는 소담한 뜰과 나지막한 돌담이 눈에 들어오고 뒷문을 열면 바람에 댕강이는 풍경 소리가 방안으로 들어와 마음을 간지럽힌다. 따뜻한 온돌에서의 숙면 후 맞는 산뜻한 아침은 부엌에서 내오는 아침상을 받으며 시작된다. 그리 대단할 것은 없으나 주인장의 소박한 손맛이 느껴지는 밥상이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주말에는 하루 세 번, 평일에는 매일 오후 2시에 해설사와 함께 골목길을 걷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날 모인 여행자는 서울에서 왔다는 친구사이의 젊은 여자 둘과 유모차에 어린아이를 태운, 대전에서 여행 온 엄마 둘과 중년의 커플 등 모두 여섯 명이었다. 안내소에서 나눠준 뚜벅이지도 한 장을 손에 들고 그들 틈에 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에는 30여 곳의 막걸리집이 성업중이다.

누군가와 만나면 한 명은 비켜서야 지날 수 있는 좁고 긴 골목길을 걷는 일은 꽤나 흥미롭다. 올망졸망 늘어선 크고 작은 공방들을 들여다보고 전통한지원에 들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자랑하는 전주한지의 생산과정을 엿보거나 몇몇 이름난 한옥의 내부를 슬쩍 들여다보고 알지 못했던 역사의 뒷이야기를 듣노라면 마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다.

쌀쌀한 바람 속 골목을 걷다 반가운 마음에 들른 베테랑 칼국수집. 개다리소반을 흉내낸 조그만 2인용 탁자 앞에 자리를 잡고는 이 집의 전 메뉴, 칼국수와 쫄면 그리고 만두 한 접시를 몽땅 시켰다. 이 집 칼국수 맛은 여전했다. 1976년 개업 당시 칼국수 한 그릇에 1백원으로 출발한 값이 36년 새 50배인 5천원으로 올랐지만 인기는 여전한 듯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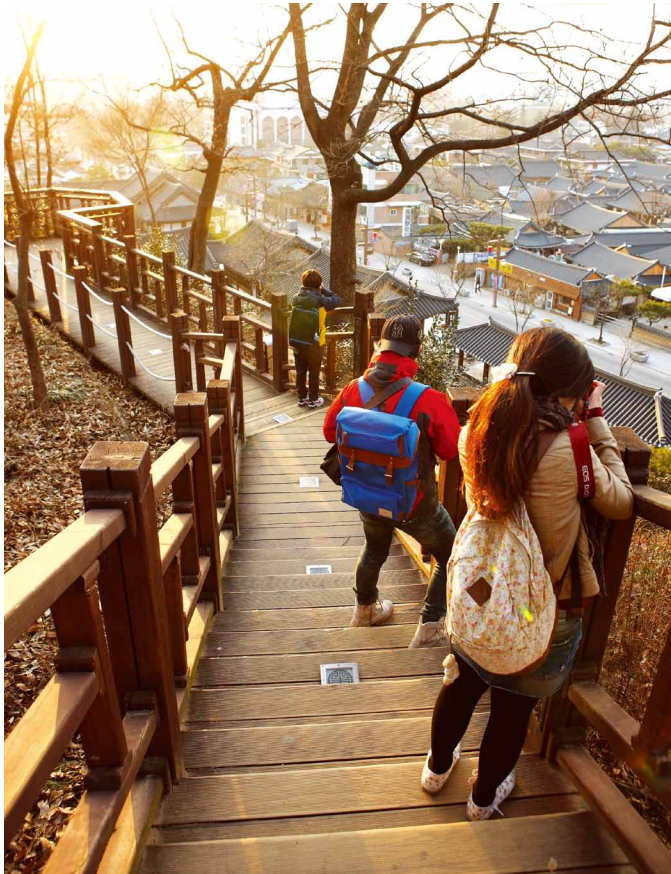
국숫집에서 나와 다시 타박타박 골목길을 걷는데 확실히 카페가 많긴 하다. 커피 열풍과 맞물려 한옥마을의 카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때문에 한옥마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버텨 온 '교동다원'의 존재가 반갑다. 최근 폭풍 같은 인기를 얻고 있는 찻집은 남천교 방향 은행로 끝자락의 '외할머니 솜씨'다.

좁고 긴 골목엔 올망졸망한 공방들 늘어서

이 구수한 이름의 찻집은 달달한 단팥죽과 옛날식 팥빙수 그리고 쌍화차 등의 몇 가지 몸에 좋은 차를 판다. 말쑥한 외관의 한옥을 개조해 정갈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달콤한 옛날식 팥죽을 쑤어 준다는 설명만으로도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 부드럽고 달콤하며 씹을 것도 없이 쑥 넘어가는 따끈따끈한 단팥죽과, 눈꽃처럼 폭신한 얼음을 갈아 넣고 잘 삶은 팥을 듬뿍 얹고는 숭덩숭덩 잘라낸 말랑말랑한 찰떡에 고소한 흑임자가루까지 뿌려낸 팥빙수를 번갈아 가며 먹느라 이가 뜨끔뜨끔했으나, 너무나 매력적인 그 맛에 홀딱 빠져 한동안 멈출 수가 없었다. 창밖으로 소복소복 눈이라도 내리면 더 좋겠다.

전주의 밤은 막걸리와 함께해야 한다. 전주에는 막걸리 골목이 여럿 있다. 가장 유명한 삼천동에는 서른 개가 넘는 막걸리집이 골목을 이룬다. 삼천2동 우체국 골목 양 옆으로 늘어선 막걸리집이 불야성이다. 삼천동과 이웃한 평화동에도 10여 개의 막걸리집이 있다. 모악산 아래쪽에 있어 산꾼들의 아지트다.

주막의 인심은 넉넉하다. 스무 집쯤 모여 있는 서신동 막걸리 골목

한옥마을 내 한지제작소. 명품 전주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오목대로 오르는 계단에 한옥마을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촬영스폿이 있다.

은 기본 안주로 삼계탕이 나오는 집이 많다. 전주의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집들이 많은데 '옛촌'이 유명하다. 한옥마을 인근의 경원동 막걸리 골목은 옛날식 주막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근처에 24시간 운영하는 콩나물국밥집 거리와 연결돼 있어 진짜 주당들이 많이 찾는다.

효자동은 막걸리집 수가 많지는 않지만 홍탁으로 유명한 홍도주막이 있어 단골이 많은 동네다. 여기에 신흥 막걸리 타운인 인후동까지 합세해 전주에는 2백여 곳의 막걸리집이 성업 중이다.

맑은 막걸리 한 주전자에 안주는 공짜

삼천동의 한 막걸리집 자리에 앉아 "막걸리 한 주전자요."라고 외쳤다. 주인장은 맑은 술인지 탁주인지를 되묻는다. 기본은 맑은 술이다. 전주 술꾼들은 막걸리를 가라앉혀 윗부분의 맑은 술만 마신다. 배가 부르지 않고 다음날 머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 한 주전자에 7백50밀리리터짜리 막걸리 세 통이 들어간다. 한 주전자에 1만5천원 안팎. 게다가 안주는 공짜다.

술 든 주전자가 등장하니 줄줄이 안주도 딸려 온다. 살 오른 청어 소금구이에 홍어무침, 족발, 닭똥집, 삶은 고둥과 뜨끈한 모두부도 등장한다. 여기에 두툼한 돼지고기와 묵은 김치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낸 찌개도 올라온다. 세어 봤더니 모두 16가지다. 얼른 앞사람을 재촉해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켠다. 시원하기 이를 데 없다.

새로 막걸리를 주문하면 안주가 하나씩 더 등장한다. (물론 공짜다!) 낙지볶음이다. 낙지는 부드럽고 졸깃하며 소면은 고소하다. 또 한 주전자를 청하니 신선한 멍게가 오른다. 신선하고도 쌉싸래한 맛이 혀에 착 감긴다. 달고도 향기롭다. 그 다음엔 꿈틀꿈틀 살아있는 낙지, 그리고 드디어 홍어삼합이 모습을 드러낸다.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간다. 깻잎 위에 잘 삶긴 돼지고기 올리고 살진 새우젓 올리고는 쏴한 냄새의 홍어 한 점 올리고 매운 고추에 저민 마늘, 쌈장을 살짝 얹는다. 부지런히 막걸리 한 모금을 주욱 들이켠 다음에는 얼른 입안으로 쏙 넣는다. 아, 이 맛이다. 코끝이 찡하다.

한옥마을 골목길 안에 생긴 독특한 풍광의 가겟집. 70~80년대의 물건을 전시, 판매한다.

한옥민박 청명헌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

해장은 콩나물국밥과 순댓국 사이에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둘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맛이라 늘 고민이다. 콩나물국밥을 선택했다면 다시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내는 토렴식의 국밥인지 아예 따로국밥 식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골라야 한다.

전주 콩나물국밥의 원조격 식당은 남부시장 내의 '현대옥'이다. 토렴식 국밥을 낸다. 1979년부터 국밥을 말아온 양옥련 할머니가 몇 해 전 다른 이에게 가게를 넘긴 뒤 최근 프랜차이즈화됐다. 예전 비법을 전수받아 맛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옛 정취가 그립다는 평이 있다.

우열 가리기 힘든 해장, 콩나물국과 순댓국

한옥마을에 숙소가 있다면 '웽이집'도 괜찮다. 바글바글 끓는 국밥에 계란 하나 얼른 깨 넣고 김가루 듬뿍 넣으면 먹기도 전에 속이 풀리는 느낌이다. 여기에 곁들인 계피와 다양한 한약재를 넣고 끓여 내는 달짝지근한 모주 한 잔을 마시면 막걸리 숙취에는 최고다.

순댓국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남부시장으로 간다. 현대옥 맞은편의 '조점례남문피순대'는 둘이 먹다 하나가 사라져도 모를 맛을 자랑한다. 잡냄새 하나 없는 칼칼하고 속 시원한 이 집 순댓국은 기존 '시장표 순댓국'에 대한 편견을 확실히 깨버린다. 게다가 이 집은 아마도, 삼삼오오 짝을 이룬 여대생끼리 또는 명품백 두른 세련된 도시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먹으러 오는 (거의) 유일한 집일 게다. 선지로 꽉 채운 검붉은 피순대의 강렬한 맛은 두고두고 생각난다. G 글 · 고선영 (여행작가) / 사진 · 김형호 (사진작가)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호남고속도로 전주IC 또는 서전주IC에서 빠져나와 월드컵 경기장 방향으로 오다가 첫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시내로 들어올 수 있다. 한옥마을은 완주IC에서 진입하는 것이 가장 가깝다. 막걸리 골목은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 경원동 막걸리촌이 가장 가깝고 한옥마을을 기준으로 남쪽에 효자동, 삼천동, 평화동이 차례로 늘어서 있다. 한옥마을 내 관광안내소에서 전주막걸리 지도를 얻을 수 있다.

먹을 곳 전주는 상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도시다. 일단 전주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은 기본이다. 수많은 비빔밥집 중 전주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곳은 **가족회관(☎063-284-2884, 1만원)**이다. 전주음식 명인 제1호인 김연임씨가 운영한다. **중앙회관(☎063-285-4288)**, **성미당(☎063-284-6595)**도 유명하다. 콩나물국밥은 **웽이집(☎063-287-698)**과 **삼백집(☎063-284-2227)**의 양강 구도. 한옥마을의 독특한 커리 요릿집 **상덕커리(☎063-288-0824)**, 대를 이어 칼국수를 만든다는 **베테랑분식(☎063-285-9898)**은 전주사람들이 줄서서 먹는 식당이다. **조점례남문피순대(☎063-232-5006)**의 순대국밥도 놓치지 말 것.

잠잘 곳 역시 전주에 왔다면 한옥마을 민박을 추천한다. 뜨끈한 구들장에 몸도 지지고 고즈넉한 한옥집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양사재(☎063-282-4959)**, **학인당(☎064-284-9929)**, **동락원(☎063-287-2040)**에서 제대로 된 고택체험을 해볼 수 있다. **승광재(☎063-284-2323)**는 소박하고 아담한 한옥 민박집이다. 2인 기준 작은 방이 5만원부터. 전주를 찾는 외국인 배낭여행자들이 찾는 **전주게스트하우스(☎063-286-8886)**와 **전주리베라호텔(☎063-232-7000)**도 있다.

문의 전주시청 문화관광과 ☎063-281-2167, http://tour.jeonju.go.kr
전주한옥마을 안내소 ☎063-282-1330, http://hanok.jeonju.go.kr

추울 때 더 생각나는 홍합탕… 홍합밥

홍합은 별명도 많다. 담채(淡菜), 담치, 참담치, 이패(貽貝), 합자(蛤子), 해폐(海蜌), 희패(姬貝), 각채(殼菜), 주채(珠采), 열합, 강섭, 섭조개 등으로 불리는데 허균은 〈도문대작〉에서 "중국인들은 '동해부인(東海夫人)'이라 한다" 했다.

홍합은 살이 붉은색이라 붙은 이름이고, 담채는 '바다에서 나는 것이 다 짜지만 유독 홍합만 싱겁기 때문에' 생긴 칭호라고 조선후기의 〈규합총서〉는 설명하고 있다.

홍합은 그 생김새 때문에 예로부터 여성을 상징하는 조개로 일컬어져 왔는데 '동해부인'은 그것을 암유적으로 표현한 점잖은 별칭이라 하겠다.

정약전의 〈자산어보〉는 홍합에 대해 "살의 빛깔은 붉은 것도 있고 흰 것도 있다. 맛이 감미로워 국을 끓여도 좋고 젓갈을 담가도 좋으나 말린 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다"고 했다.

홍합은 〈본초강목〉이나 〈방약합편〉 같은 옛 의서에 오장의 기운을 보호해 주고 허리와 다리를 튼튼하게 하며 성기능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정도로 그 효험을 인정받아 왔다.

조선왕실에선 '홍합미음'을 보약으로 인정

〈승정원일기〉에는 대왕대비의 병환을 걱정하여 수라를 들지 않는 영조에게 신하들이 "일반 사람들은 지극히 애통한 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화열(火熱)이 속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줄도 모르는데 일단 병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자연이나 인간이나 마찬가지이니, 제왕이라고 해서 어찌 다르겠습니까.

여항의 효자 가운데는 병이 날 것을 염려하여 혹 홍합수계탕(紅蛤水鷄湯)을 먹고 나서야 슬픔으로 목숨을 잃는 일을 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모두들 효자라고 칭송합니다"라고 아뢰는 대목이 나온다.

〈일성록〉에도 정조가 "홍합미음(紅蛤米飮)이 꽤 효과가 있다"고 이르자 규장각의 직제학 서호수가 "이것은 청담한 재료를 써서 몸을 보해 주는 처방이므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아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실의 연회를 기록한 〈진찬의궤〉나 〈진작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등에도 홍합증(紅蛤蒸), 홍합초(紅蛤炒), 홍합전(紅蛤煎) 같은 다양한 요리가 등장한다. 조선중기의 시인 이응희는 〈옥담사집(玉潭私集)〉에 홍합의 맛을 예찬하는 시를 남기고 있다.

김승완 기자

"푸른 바닷속에 조개가 있는데 有蛤滄溟裏/ 형체는 미미해 보잘것없지만 形微百不侔/ 붉은 빛이 보배처럼 빛나고 丹赤珍輝燦/ 감미로운 향과 맛도 뛰어나다네 甜香美味優/ 겨울에 채취하면 반찬으로 좋고 冬拾宜盤膳/ 봄에 말린 건 잔치 음식에 쓰이지 春乾入宴需/ 비록 생선과 게만큼은 대접을 못 받는다 해도 雖居魚蟹下/ 빼어난 맛만큼은 비길 데가 없구나 嘉品食無儔"

홍합은 세계적으로 2백50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우리나라에는 토종인 참홍합을 비롯해 진주담치, 뿔담치 등 20여 종이 서식한다고 한다. 요즘 우리가 먹는 홍합은 대부분 외래종인 진주담치이다. 홍합은 추운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가 제철이다. 산란기인 늦봄부터 여름까지는 맛이 떨어지며 삭시톡신(Saxitoxin)이라는 마비성 패류독이 검출되기도 해 조심해야 한다.

홍합요리는 다양하지만 울릉도의 향토음식 홍합밥이 압권이다. 울릉도에서는 보배식당이 홍합밥으로 유명하고 서울에서는 삼청동의 청수정에서 갯내음 물씬 나는 그 맛을 즐길 수 있다. G

글·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음식문화평론가)

당파가 뭐길래…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1587~1671)는 여섯 살 때 임진왜란을 겪어야 했고 광해군 때 일개 유생의 신분으로 당시의 권력자 이이첨을 지목하여 비판했다가 함경도와 경상도 등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다. 남인에 속했던 윤선도는 인조반정이 일어나고서야 유배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윤선도는 초야에 머물러 있다가 마흔두살 때인 1628년(인조6년) 봉림대군과 인평대군의 사부가 되어 두 왕자를 보도하였다. 특히 봉림대군은 훗날 왕위에 올라 효종이 되기에 이 인연은 윤선도에게도 각별한 것이었다.

이듬해 문과에 급제한 윤선도는 세자시강원 문학이 되어 소현세자의 학문을 보도(輔導)하게 되었는데 세자 주변에서 "윤선도가 몰래 모략을 꾸미니 앞으로 세자에게 이롭지 못하리라"는 유언비어 파문으로 인해 벼슬에서 물러나야 했다. 윤선도에 대한 서인들의 견제는 이처럼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1638년 병자호란 때 윤선도는 의병을 이끌고 강화도로 나아갔으나 도착하기도 전에 청나라와 화의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도로 내려가다가 풍랑을 만나 보길도에 이르러 이곳에서 은거생활에 들어갔다.

그 사이 조정에서는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윤선도가 가르친 적이 있던 봉림대군이 왕위에 올랐다. 효종이다. 효종은 윤선도를 불러올리려 했고 서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공작을 펼쳤다.

효종은 서인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선도를 한양으로 불러올려 승지, 예조참의 등에 제수했다. 하지만 나날이 목을 죄어오는 서인들의 공세 앞에서 윤선도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연일 귀향을 허락해 달라는 상소를 올려 마침내 낙향을 하게 된다.

출사와 낙향을 거듭하는 가운데 윤선도는 어느새 남인을 이끄는 영수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 1659년 효종이 세상을 떠나자 장지문제와 자의대비의 복상문제가 제기되는데 예송논쟁이 그것이다. 왕실을 업신여겼던 서인들은 1년상이면 충분하다고 했고 왕실을 존숭하던 윤선도는 3년상으로 맞섰다. 윤선도의 패배였다. 결국 윤선도는 이듬해 '삼수갑산' 하는 그 삼수로 유배를 가야 했다.

집권 초기 서인들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랐던 현종은 점차 예송논쟁의 속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서인들에 대한 견제의 시작임과 동시에 남인의 복권을 의미한다. 삼수에서 전라도 광양으로 위배돼 있던 윤선도를 풀어 주라는 명이 내려온 것이 현종7년(1666)이다. 그러나 이미 윤선도의 나이 여든이었기 때문에 현직 복귀는 불가능했다.

일러스트·유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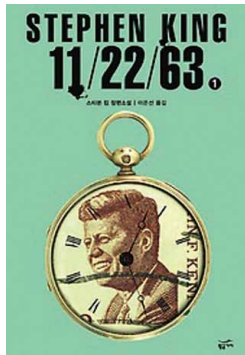
인조반정에서 권력 쥔 서인들 추천으로
42세로 두 왕자에 이어 세자의 스승 되나
남인의 영수될 재목으로 찍혀 집중 견제
평생 경륜 펼 기회 잃고 문인으로만 기억

이때 사면된 윤선도는 바닷가로 들어가 5년간 살다가 1671년 85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누구보다 충직했으나 서인들의 견제에 이렇다 할 경륜을 펼치지 못한 윤선도는 그나마 시가들을 남김으로써 우리에게는 문인으로라도 기억되고 있다. 그의 호와 연관된 시 '고산(孤山)만이 홀로 항복하지 아니하였다'에 그의 심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푸른 물결 문득 일어 푸른 바다인 양 드넓으니
긴 들과 큰 강을 분별할 수가 없구나!
어찌하여 이 산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는가?
일천 구릉 일만 언덕이 순식간에 줄이어 항복했거늘…. G

글·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11/22/63〉

그날로 가서 케네디 암살 막아라?

스티븐 킹 지음 · 이은선 옮김
황금가지 · 1만3천5백원

역사적인 사건을 바꾼다면 세상은 더 나아질까?

갈림길에선 늘 가 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남기 마련이다. 그래서 가 보지 않은 낯선 미래에 대한 동경도 언제나 삶을 자극한다. 이 '만약에'라는 가정에 시간여행인 '타임 슬립'을 장착한다면 그저 그렇고 그런 공상과학(SF)소설로 전락하기 쉽다.

하지만 전 세계에 3억5천만명의 독자를 지닌 이야기꾼 스티븐 킹(65)이 소설을 썼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미저리〉 〈쇼생크 탈출〉 〈그린마일〉 〈샤이닝〉 등 대표적인 할리우드 영화의 원작자인 킹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책장에서 손을 떼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얽힌 서사의 그물을 쳐 놓았다. 그리고 독자들은 송두리째 그 그물에 걸려 든다.

이야기꾼이 펼치는 진짜같은 SF소설

킹의 신작 〈11/22/63〉은 미국 역사상 최연소 (선거로 선출된)대통령이자 불황과 냉전, 전쟁의 공포로 치닫던 시기에 희망을 제시한 존 F. 케네디의 암살을 다룬다. 강대국의 수장이 맥없이 삶을 마감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돌려놓는다면 '어떻게 역사가 달라질 것인가' 하는 그럴듯한 가정을 소설적 상상력으로 흥미롭게 풀어 간다.

사실 시간여행이란 소재는 작가에겐 다소 생소한 것이었다. 킹은 지난해 미국에서 이 책을 처음 출간하면서, "이런 글을 써 본 적이 없어 마치 새 신발에 발을 구겨 넣은 것처럼 이상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독자가 자동차(영화 〈백 투더 퓨처〉)나 파란 전화부스(영화 〈닥터 후〉)를 타고 떠나는 요란한 시간여행을 떠올렸다면 실망할 게 뻔하다. 드라마 〈닥터 진〉의 주인공처럼 급작스럽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빠져드는 강압적인 시간여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인공인 35세의 영어교사 '제이크 에핑'은 사실 작가의 분신이다. 미 메인주 출신으로, 세탁공장 인부와 건물 경비원을 전전하다 작은 공립학교의 영어교사로 일했던 킹은 역시 메인주 출신의 궁핍한 영어교사 에핑을 등장시킨다. 자전적 얘기인 양 소설을 이끌어 가는 셈이다.

어느날 동네 음식점 주인이자 친구인 앨 템플턴은 에핑에게 비밀스러운 제안을 한다. 템플턴의 음식점 창고에 1958년 9월 9일 오전 11시58분의 메인주 리스본 폴스로 이어지는 시간통로가 존재하며, 이곳을 통해 시간여행을 해 보라는 것이다.

시간여행의 규칙은 독특하다. 현재로 돌아와 다시 과거로 출발하면 원점인 1958년 9월 9일 오전 11시58분이 된다. 또 1분이든 10년이든 과거로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현실 세계에선 딱 2분의 시간만 허비될 뿐이다.

시험 삼아 불과 몇 시간의 시간여행을 마친 에핑에게 템플턴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막아 보라고 제안한다. 1963년 11월 22일 벌어진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막으려면 과거로 돌아가 적어도 5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폐암 말기인 템플턴에겐 불가능한 숙제였다.

만약 케네디가 죽지 않았다면? 템플턴은 후임 대통령인 존슨과 닉슨에 의해 베트남전이 확전되지 않았을 것이며, 6만명의 미군과 수백만명의 베트남인이 목숨을 부지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지 않고 인종 폭동도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과거의 미묘한 움직임이라도 변하면 후일 큰 변화를 초래한다는 '나비효과'에 기원을 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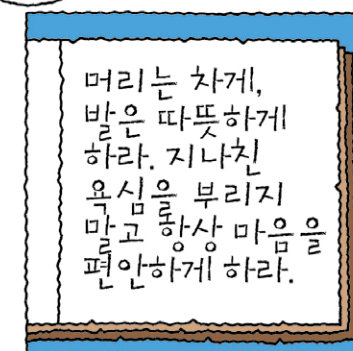
그러나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는 건 만만치 않다. 주인공이 과거의 모든 사건을 알고 있다고 해도, 미래에 영향을 주는 작은 일이라도 바꾸려 들면 의문의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 이를 방해한다.

외줄을 타듯 위태로운 상황과 기나긴 시간의 기다림을 뚫고 주인공은 마침내 역사의 진실에 한발 다가서는데…. 잠시 '스포일러'가 되자면, 소설에는 지구 멸망과 역사의 후퇴 등 할리우드적 영화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다. 12월 초에 발간될 2권(전 2권)에는 범인(凡人)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사'라는 메시지가 담긴다. G

글 · 오상도 (서울신문 문화부 기자)

건강의 비결

글과 그림 · 최영순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 몸을 희생하는 일이다. - A.쇼펜하우어(독일의 철학자)

가무악극 〈화선 김홍도〉는 조선시대 그림 애호가인 김동지와 손수재가 김홍도의 그림인 〈추성부도〉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시작된다.

그림 속 환상인가? 현실인가?

〈화선 김홍도〉

가무악극 〈화선 김홍도〉가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 오른다. 〈화선 김홍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 콘텐츠를 만들어 세계 무대에 선보인다는 목표로 국립극장 소속 3개 단체인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이 함께 기획한 프로젝트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작품 세계를 춤, 음악, 연극이 어우러진 가무악극 형식과 3D영상기법을 결합해 보여줄 예정이다.

이야기는 조선시대 그림 애호가인 김동지와 손수재가 김홍도의 그림인 〈추성부도〉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시작된다. 두 사람은 각자 그림 속에서 옛 연인과 어머니를 찾아 헤맨다. 두 친구의 여정은 단원의 작품 속 풍경이 되고, 그림 속 인물들은 스크린 속 2D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이다 3D로 그림을 뚫고 나와 무대 위를 누빈다.

이번 공연에서 보여주는 음악 형식은 특히 눈길을 끈다. 우리 고유의 장단과 선율을 주로 사용하고 판소리와 창법을 차용했다. 거기에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 등 10인조 서양 오케스트라를 함께 편성해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음악을 선보인다.

이 밖에 오케스트라를 무대 위에 배치하여 관객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볼 수 있게 했다. 또 무대가 객석으로 이어져 그림 속 인물들이 현실과 환상 속을 넘나드는 듯한 효과를 꾀했다. G

정리·정소안 인턴기자

기간 12월 5~9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02-2280-4115~6

공연 리얼그룹 크리스마스 콘서트

아카펠라 혼성 5인조 리얼그룹(The Real Group)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한국을 찾는다. 리얼그룹의 음악은 재즈에 바탕을 두면서도 영미 팝음악과는 또 다른 스웨디시 팝만의 멜로디와 간결한 편곡, 세련된 감각을 더한 음악이다. 2006년과 2007년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리얼그룹은 2006년 이후 6년 만에 만든 스페셜 크리스마스 앨범(The World For Christmas) 발매 기념으로 월드 투어를 가져 눈길을 끈다.

기간 12월 10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99-5743

공연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탄생 25주년 기념 월드투어 공연으로 한국에서 내한공연을 한다. 작품의 내용은 19세기 파리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흉측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지하에 숨어 사는 천재음악가 팬텀과 여주인공 크리스틴, 그리고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귀족 청년 라울의 이야기이다. 7년 만의 내한공연인 이번 공연은 1986년 영국 웨스트엔드, 1988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래 전 세계에서 6만5천 회 이상 공연됐다.

기간 12월 7일~2003년 1월 31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문의** ☎1544-1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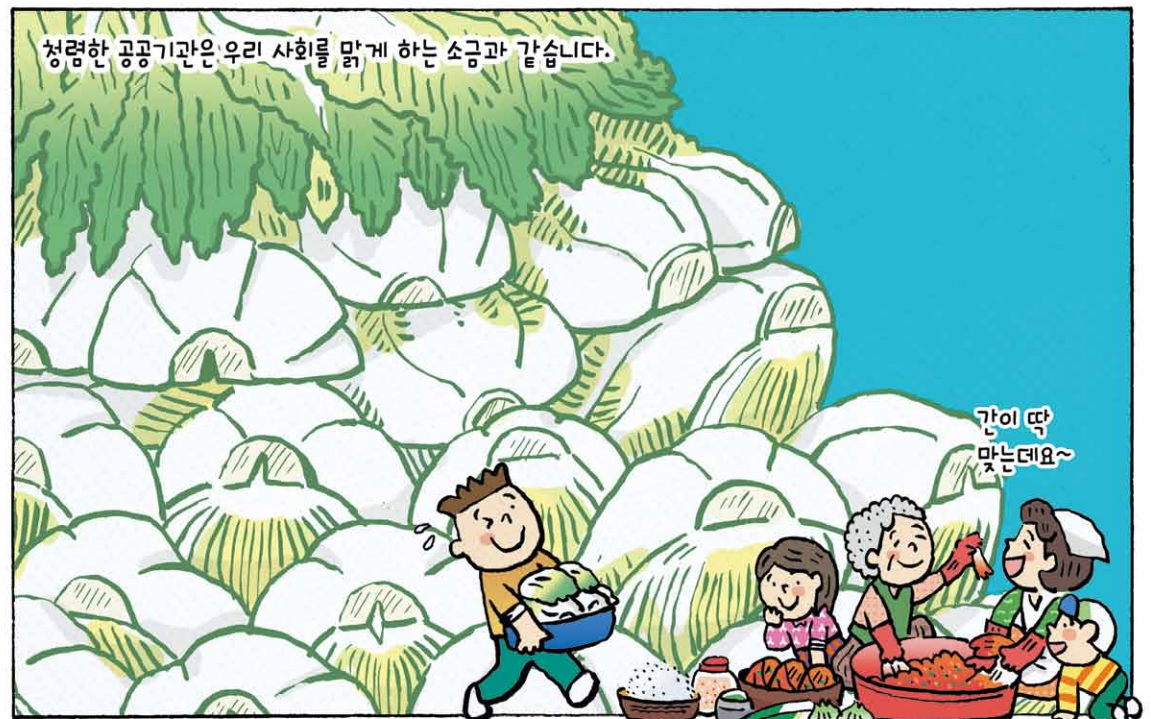
12월 첫째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11월 17일~11월 23일

곡명	가수
1 되돌리다	이승기
2 힐링이 필요해	로이킴
3 허수아비	이하이
4 나쁜 사람	주니엘
5 1,2,3,4(원,투,쓰리,포)	이하이
6 하지 못한 말	노을
7 멀어질까봐	C-CLOWN(씨클라운)
8 officially missing you,too	긱스,소유
9 눈물이 툭(feat.박경 of 블락비)	지아
10 보여줄게	에일리

소금처럼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덜 절여진 상태로 김치를 담그면 쉽게 상하게 됩니다.

깨끗한 공공기관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네 등이 내 등이고, 내 등이 네 등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일까. 어떤 이는 머리에서 가슴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지구의 오지 중 어디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남태평양의 작은 섬 아누타에 가기에는 사실 멀어도 너무 멀다. 이런 과학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리는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한다.

요즘 나는 '나의 등'이 세상에서 심리적·과학적으로 가장 먼 곳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바라볼 수 없고 걸어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 나의 등. 나의 등을 바라보는 순간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너무 멀기만 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타인의 등을 바라보았다. 초겨울 도로에 떨어진 낙엽들이 자동차 바퀴 밑에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는 풍경을 배경으로 우연히 나는 한 사내의 등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나와 연배가 비슷해 보이는 그 사내는 서류가방을 들고 마을버스 정거장에 서 있었다. 낙엽이 참으로 처량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의 등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다. 그의 등이 마치 거울처럼 보였던 거다. 나는 탄식했다.

'야, 이것 참 대단한 일이구나.'

일러스트 · 유현호

남의 등이 바로 거울… 좀 더 배려하고 살자

그날은 아버지의 기일이었다.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는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에 있는 충혼당에 잠들어 있다. 충혼당의 3번 제례실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와 제3 장군묘역 앞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는데 문득 아버지 말년에 바라보았던 등이 생각났다. 당신께서는 등을 잘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는 거동이 불편하신지 등을 자주 보여주셨다.

그 건장하시던 분이 어린아이처럼 가벼워져, 병원에 다녀올 때면 5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내가 업어 드리곤 했다. 아마도 내가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4주년이 되니 당신이 극락왕생하셨기를 바랄 뿐이다. 그날 제사를 드리고 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비야, 너의 아버지는 극랑왕생하셨다."

"무슨 말이세요?"

"여기를 봐라. 현충원처럼 좋은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어머니 말씀을 따라 현충원을 바라보니 과연 풍경이 딴 세상 같아 보였다. 비석들이 가지런하게 놓인 모양도 삶의 코스모스 형태였고, 우리나라를 위해 공이 있는 분들이니 그 영혼의 무게가 아름답고 투명했다. 어머니 말씀이 옳았다. 여기가 바로 극락이다.

나는 그날 사람의 등을 생각했다. 등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땅바닥에 닿는다. 길바닥이거나 방바닥이거나 모두 바닥이다. 삶의 끝은 등에 있다. 그러니 끝까지 가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지금 등을 세우고 이 글을 쓰고 있다. 내 등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타인의 등은 바라볼 수 있다. 그들이 감추고 있는 그림자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이 등에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람과 사람이 가장 가까워지는 길이 등에 나 있었다.

나는 이 글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 먼 거리가 등이라고 했지만…, 내가 타인의 등을 바라본다면, 그 등을 나의 등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세상에 없다. 오늘, 타인의 등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본다.

글 · 원재훈 (시인 · 소설가)